



2022 수산물 수출기업 맞춤형 시장조사



No. | 202208-05
품목 | 건조 톳
HS CODE | 2008.99-5090
국가 | 독일(Germany)
구분 | 시장분석형





CONTENTS

I. 요약	04
II. 시장규모	
1. 독일 수산가공식품 시장규모	06
2. 한국 건조 톳 생산규모	07
3. 독일 건조 톳 수입규모	08
4. 독일 건조 톳 수입금액	09
III. 시장트렌드	
1. 독일 해조류 경쟁제품 1위, ‘김’	11
2. 독일 해조류 제품, ‘재밀봉이 가능한’ 패키지 다수	12
3. 독일 해조류 성분, ‘요오드’ 키워드 빈도 1위	13
4. 독일 해조류 제품, ‘건조’ 형태로 가장 많이 판매	14
IV. 유통채널	
1. 독일 건조 톳 유통채널 비교	16
2. 독일 건조 톳 유통채널 특징	17
3. 독일 건조 톳 B2B 유통채널	20
4. 독일 건조 톳 B2C 유통채널	21





CONTENTS

V. 진입장벽

1. 건조 톳 통관 및 검역 절차	28
2. 건조 톳 수출 전 사전 준비	29
3. 건조 톳 국내 수출 신고 및 통관	41
4. 건조 톳 국내 수출 검역 및 검사	43
5. 건조 톳 독일 수입 신고 및 통관	45
6. 건조 톳 독일 수입 검역 및 검사	47

VI. 수입·유통업체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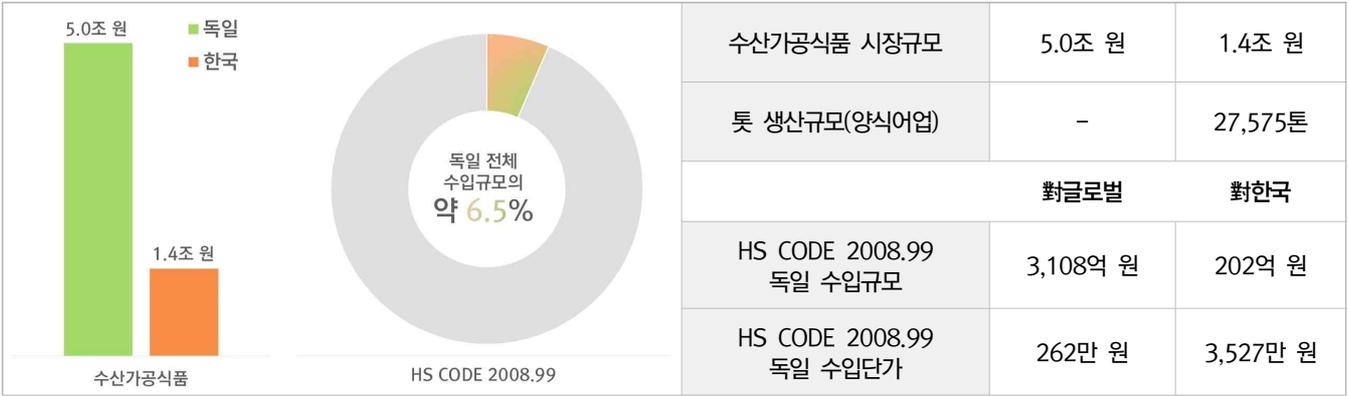
Interview ① 제이에프씨인터내셔널유럽(JFC International Europe)	49
Interview ② 제이아이케이게엠베하아시안푸드(JIK GmbH Asian Food)	51
Interview ③ 재팬 파인코스트(Japan Feinkost)	53

※ 참고문헌	55
--------	----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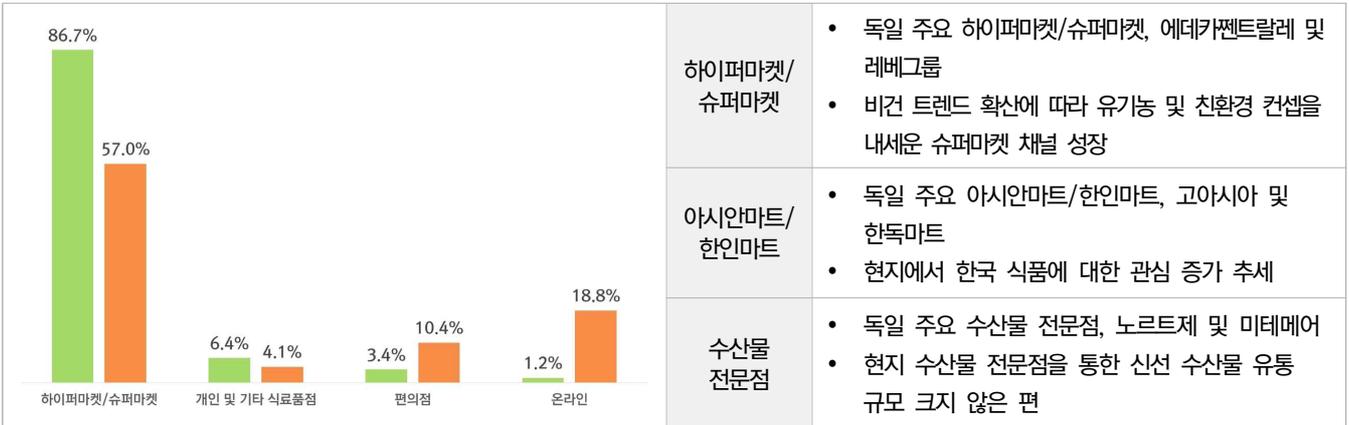
■ 시장분석



■ 시장트렌드



■ 유통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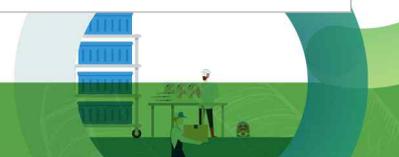
■ 진입장벽

담당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독일 연방식품원, 독일 국경통제소 등 	국내 수출 검역 및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사 건조 톳, 수출 시 검역대상 지정검역물 해당 無
수출 전 사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수출업체 AEO 등록시 혜택 有 독일 및 EU 요오드 함량 준수 必 	독일 수입신고 및 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통관 진행 시 EORI 번호 발급 必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후 물품 반출
국내 수출신고 및 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신고 및 통관 시 수출신고서, 선하증권, 송장 등 제출 필요 	독일 수입검역 및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국경통제소 수입검사 유기농 제품은 전자 검역 인증서 발급

■ 수입·유통업체 인터뷰

Point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내 해조류, 천연 보충제나 단백질 대체원 등 건강상의 이점을 가진 식품으로 각광 현지 인기 해조류 품목은 김과 다시마, 미역 현지 아시아계 소비자들 사이에서 톳 시장수요 있으나, 그 규모는 아직 작은 편
Point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내 톳의 주요 유통채널은 일본마트, 한인마트 등의 아시아마트 고객사 제품 가격, 현지 경쟁제품 대비 높은 편 고객사 제품 독일 수출 시, 톳의 무기비소 함량 주의할 필요 있어

(*) a브랜드-c브랜드 : 한국 경쟁브랜드명 이나설 처리





II. 시장규모

1. 독일 수산가공식품 시장규모
2. 한국 건조 톳 생산규모
3. 독일 건조 톳 수입규모
4. 독일 건조 톳 수입금액

1. 독일 수산가공식품 시장규모

독일 국가 일반 정보¹⁾

면적	35만 7,580km ²
인구	8,316만 명
GDP	3조 8,000억 달러
1인당 GDP	4만 5,781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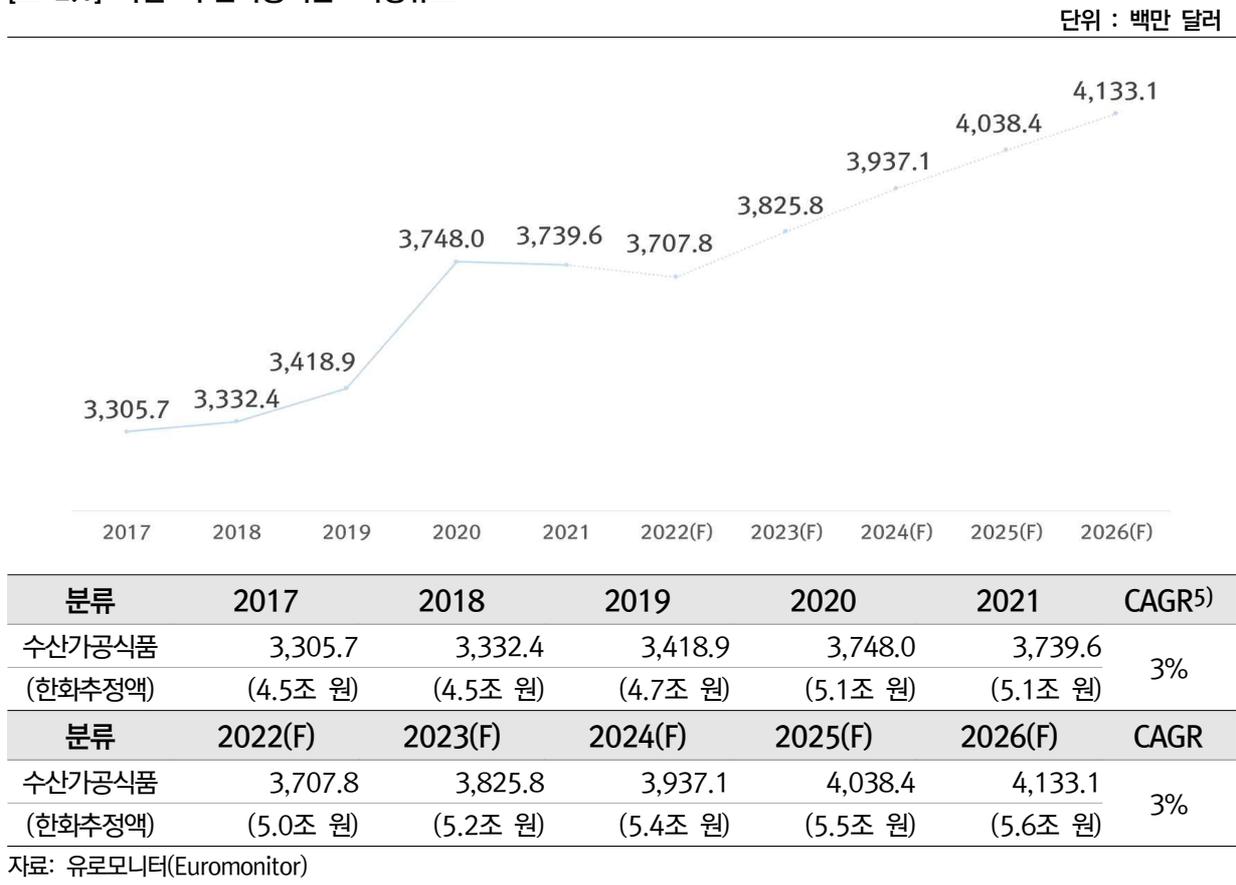
▶ 독일 2021년 수산가공식품 시장규모 5.0조 원²⁾

2021년 기준 독일 수산가공식품(Processed Seafood) 시장규모는 약 5.0조 원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함. 독일 수산가공식품 시장은 지난 5년(2017-2021년) 동안 연평균성장률 3%를 기록했으며 2020년에 특히 전년 대비 약 10%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임

▶ 독일 수산가공식품 시장, 향후 안정적인 성장 전망

유럽에서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조류가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음. 이에 독일 수산가공식품 시장 또한 향후 5년(2022-2026년) 동안 연평균 3%씩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³⁾

[표 2.1] 독일 '수산가공식품' 시장규모⁴⁾



1) 자료: 외교부, 「국가개황」, 2020

2) FishStat에 따르면 독일 툿(Fusiform sargassum) 생산규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산가공식품(Processed Seafood)의 시장규모를 조사함

3) 자료: KATI 농식품수출정보, 「유럽, 해조류에 눈뜨다.」, 2020.07

4) 1유로=1,361.87원(2022.07.01, KEB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5) 연평균성장률(CAGR): 수년 동안의 성장률을 매년 일정한 성장률을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 성장률을 환산한 것

2. 한국 건조 톳 생산규모

▶ 한국 2020년 톳 생산규모 총 2만 7,575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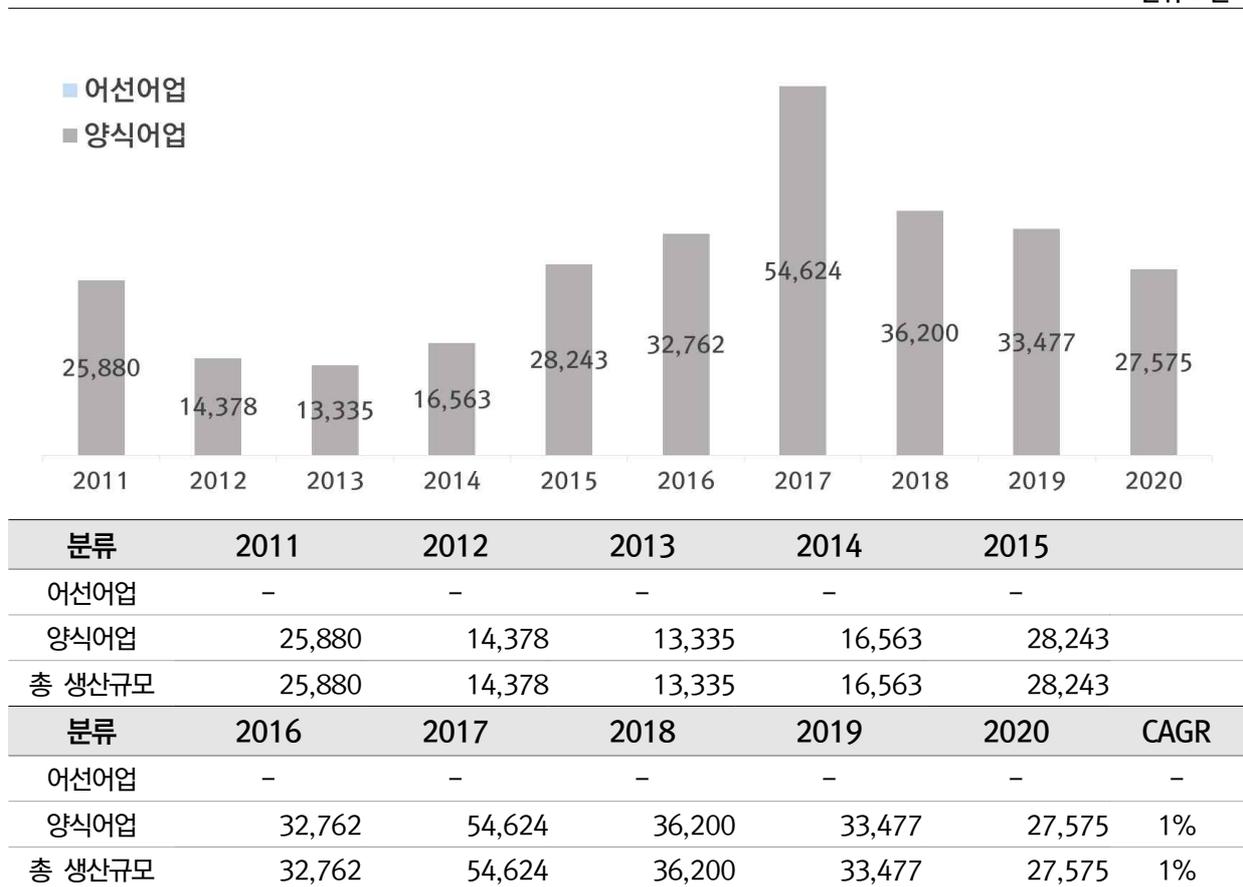
2020년 기준 한국의 톳(Fusiform Sargassum) 양식어업 생산규모는 총 2만 7,575톤으로 전년 대비 약 18% 감소함. 조사기간 동안 집계된 한국 톳 생산량은 모두 양식어업을 통한 생산량이며, 어선어업 생산량은 집계되지 않았음

▶ 한국 톳 생산규모, 최근 10년 간 연평균성장률 1%

최근 10년(2011-2020년) 동안 양식어업을 통한 한국의 톳(Fusiform Sargassum) 생산량은 2011년부터 2년간 감소한 이후 증가세로 반전됨. 하지만 2017년 기준 5만 4,624톤을 고점으로 다시 감소세에 들어섬. 전 세계에서 톳 생산규모가 집계되는 국가는 한국 외에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됨

[표 2.2] 한국 '톳' 생산규모

단위 : 톤



자료: Fishstat]

6) 어선어업 및 양식어업 생산량의 합을 의미하나, FishStat]에 의하면 한국 톳(Fusiform Sargassum)의 어선어업 데이터는 집계되지 않음

3. 독일 건조 톳 수입규모

● 건조 톳 HS CODE

해당 장에서 '건조 톳은 'HS CODE 2008.99'로 분류됨 HS CODE 제2008호의 품명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임

▶ HS CODE 2008.99 독일 對글로벌 수입액 약 3,145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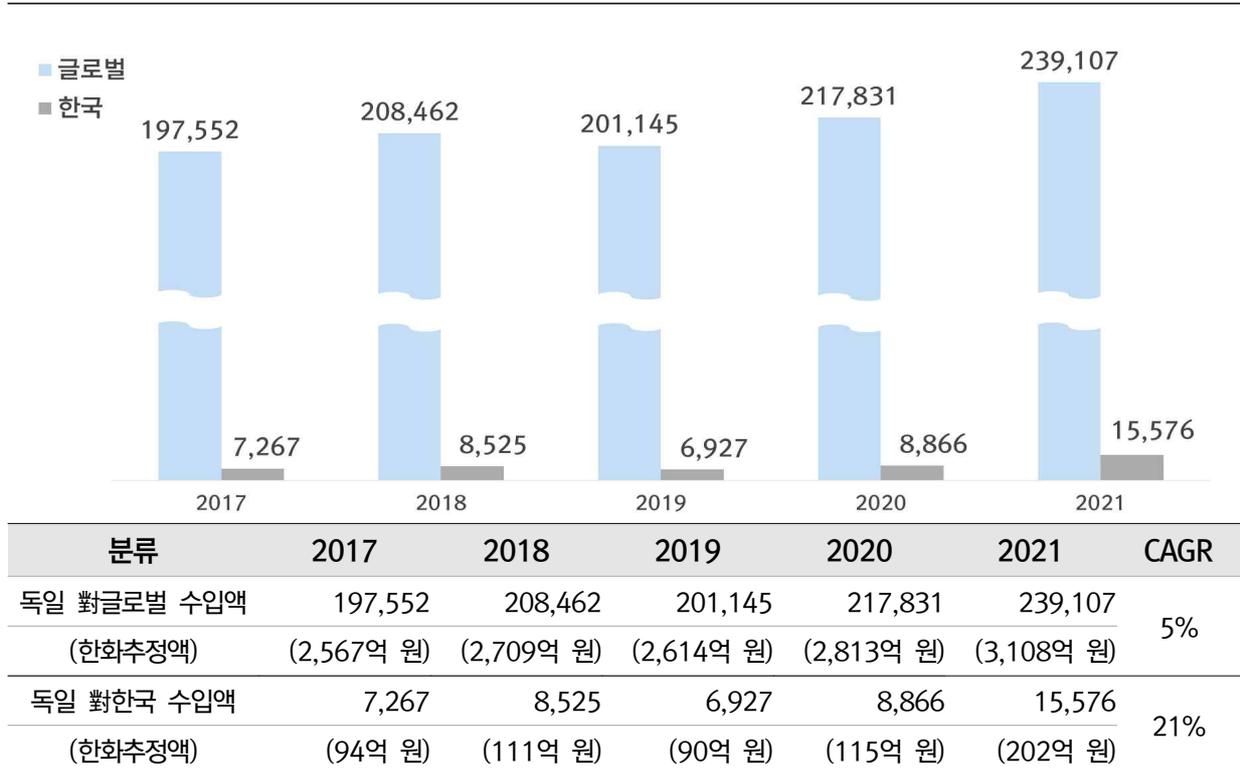
2021년 기준 독일 對글로벌 HS CODE 2008.99 수입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약 3,108억 원으로 집계됨. 지난 5년(2017-2021년) 중 독일 對글로벌 HS CODE 2008.99 수입액은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며, 해당 기간 연평균성장률은 5%로 확인됨

▶ HS CODE 2008.99 독일 對한국 수입액, 연평균성장률 21%

2021년 기준 독일 對한국 HS CODE 2008.99 수입액은 전년 대비 76% 급증한 약 202억 원으로 전체 수입액 기준 6위로 확인됨. 지난 5년(2017-2021년) 동안 독일 對한국 HS CODE 2008.99 수입액은 연평균 21% 증가함. 해당 품목의 독일 對글로벌 수입액 기준 1위 네덜란드(412억 원), 2위 이탈리아(282억 원), 3위 오스트리아(261억 원)로 조사됨

[표 2.3] 독일 '톳' 수입규모(7)8)9)

위 : 천 달러



자료 :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

7) 자료: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

8) 환산된 데이터(단위: 원)는 모두 반올림됨

9) 1달러=1,299.80원(2022.07.01., KEB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4. 독일 건조 톳 수입금액

▶ **독일 HS CODE 2008.99 1톤 당 수입단가 약 262만 원**

2021년 기준 독일 對글로벌 HS CODE 2008.99의 품목 단위당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11% 상승한 약 262만 원으로 집계됨. 지난 5년(2017-2021년)간 해당 품목의 수입단가는 연평균 4% 상승함

▶ **독일 HS CODE 2008.99 수입단가, 한국 1위**

2021년 기준 독일 對한국 HS CODE 2008.99의 수입단가는 3,527만 원으로 글로벌 기준 1위를 차지함. 해당 품목의 독일 對글로벌 수입단가 순위는 뒤이어 2위 뉴질랜드(3,379만 원), 3위 리투아니아(2,711만 원)로 확인됨

[표 2.4] 독일 '건조 톳' 단위당 수입금액

단위 : 달러/톤, 톤



분류	2017	2018	2019	2020	2021	CAGR
독일 對글로벌 수입금액	1,704	1,774	1,602	1,808	2,013	4%
(한화추정액)	(221만 원)	(231만 원)	(208만 원)	(235만 원)	(262만 원)	
독일 對글로벌 수입량	115,945	117,506	125,575	120,482	118,796	1%
독일 對한국 수입금액	29,905	28,043	24,564	24,628	27,136	-2%
(한화추정액)	(3,887만 원)	(3,645만 원)	(3,193만 원)	(3,201만 원)	(3,527만 원)	
독일 對한국 수입량	243	304	282	360	574	24%

자료 :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



III. 시장트렌드

1. 독일 해조류 경쟁제품 1위, '김'
2. 독일 해조류 제품, '재밀봉이 가능한' 패키지 다수
3. 독일 해조류 성분, '요오드' 키워드 빈도 1위
4. 독일 해조류 제품, '건조' 형태로 가장 많이 판매

1. 독일 해조류 경쟁제품 1위, ‘김’

▶ 독일 해조류 경쟁제품 가운데 ‘김’ 키워드 빈도수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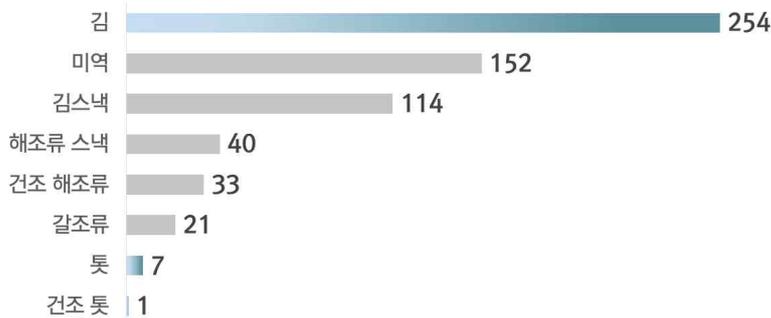
- 독일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해조류’ 카테고리 제품 중 ‘김’ 키워드가 254건 등장하며 빈도수 1위 차지
- 2위는 ‘미역’으로 키워드 빈도수 152건이나, 대부분 유입을 위해 포함된 키워드인 것으로 보이며 ‘김’ 제품과 중복되는 경우 다수
- ‘툇’ 및 ‘건조 툇’ 키워드 각각 7건, 1건 등장

▶ 독일 온라인 몰, 한국산 해조류 제품 판매 중

- ‘아마존(Amazon)’, ‘이베이(eBay)’ 등 독일 온라인 채널에서 김과 미역과 같은 한국산 해조류 판매 중
- 다만, 한국산 툇 제품은 판매 미진행

1위 김		2위 미역		7위 툇	
					
브랜드	a 브랜드	브랜드	a브랜드	브랜드	알겐라덴(Algen Laden)
분류	김	분류	미역	분류	툇
용량	115g	용량	150g * 2팩	용량	100g
가격	10.99유로(1만 4,967원 ¹⁰⁾)	가격	19.99유로(2만 7,224원)	가격	19.99유로(2만 7,224원)

[표 3.1] 독일 건조 툇 경쟁제품 관련 키워드



자료: 독일 온라인 몰 판매 ‘해조류’ 제품 분석

10) 1유로=1,361.87원(2022.07.01., KEB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2. 독일 해조류 제품, ‘재밀봉이 가능한’ 패키지 다수

▶ 독일 해조류 제품, ‘재밀봉이 가능한’ 패키지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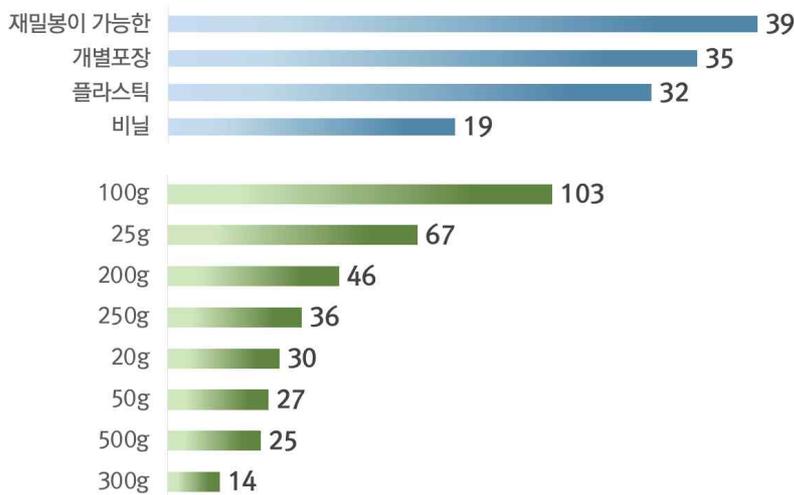
- ‘재밀봉이 가능한’ 키워드가 빈도 39건으로 패키지 관련 키워드 1위
- ‘김’ 관련 제품 중 빈출 2위 키워드인 ‘개별포장’ 다수 등장
- 이외에 ‘플라스틱’ 키워드 빈도 32회, ‘비닐’ 키워드 19회

▶ 독일 해조류 중량 키워드 1위, ‘100g’

- 독일 온라인 판매 해조류 중 ‘100g’ 키워드가 빈도 103회로 최다 빈출, 2위는 ‘25g’으로 키워드 빈도 67회
- ‘200g’, ‘250g’, ‘20g’, ‘50g’ 등이 차례로 빈출하며 다양한 중량 옵션이 존재하며, 톳 제품의 경우에도 소량 포장부터 대량 포장까지 다양한 중량으로 판매되고 있었음

패키지 1위 재밀봉이 가능한		패키지 2위 재밀봉이 가능한		중량 1위 100g	
브랜드	b브랜드	브랜드	c브랜드	브랜드	알겐라덴(Algen Laden)
분류	김	분류	김	분류	미역
용량	50g	용량	3.5g * 48팩	용량	100g
가격	19.49유로(2만 6,543원)	가격	20.99유로(2만 8,586원)	가격	17.99유로(2만 4,500원)

[표 3.2] 독일 건조 톳 패키지/중량 관련 키워드



자료: 독일 온라인 몰 판매 ‘해조류’ 제품 분석

3. 독일 해조류 성분, ‘요오드’ 키워드 빈도 1위

▶ 독일 해조류 성분 키워드 1위, ‘요오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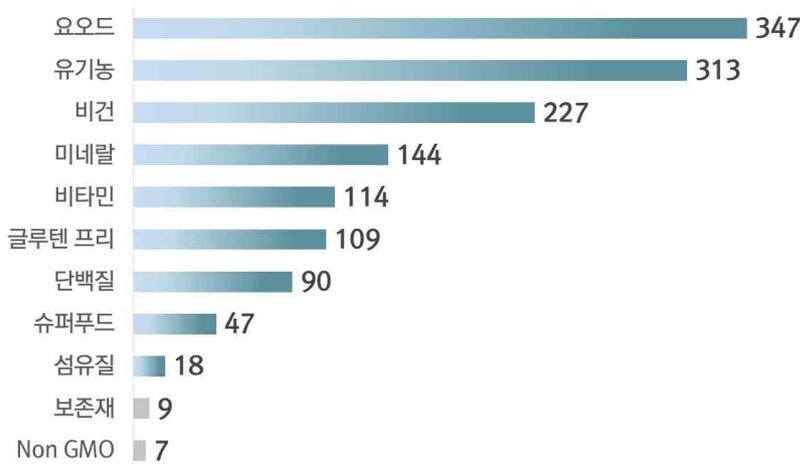
- 독일 현지 온라인 몰에서 판매 중인 해조류 제품의 성분 관련 키워드 중 ‘요오드’가 빈도 347회로 최다 빈출
- 이외에도 ‘미네랄’, ‘비타민’, ‘글루텐 프리’, ‘단백질’, ‘슈퍼푸드’, ‘섬유질’ 등 건강상 이점이 가진 성분을 포함했다는 점 강조한 제품 다수 존재하며 한 제품에 여러 키워드가 중복하여 등장하기도 함

▶ 독일 온라인 판매 해조류 제품, 환경 관련 요소도 함께 홍보

- 건강상 이점을 지닌 성분 외에도 ‘유기농’ ‘비건’ 등 현지 소비자들의 환경 의식을 반영한 키워드도 각각 313회, 227회 빈출

1위 요오드		2위 유기농		3위 비건	
					
브랜드	카부미(Cavumi)	브랜드	씨모어(Seamore)	브랜드	알겐라덴(Algen Laden)
분류	바다포도	분류	미역	분류	톳
용량	20g	용량	100g * 3팩	용량	100g
가격	10.99유로(1만 4,967원)	가격	18.95유로(2만 5,807원)	가격	19.99유로(2만 7,224원)

[표 3.3] 독일 건조 톳 성분 관련 키워드



자료: 독일 온라인 몰 판매 ‘해조류’ 제품 분석

4. 독일 해조류 제품, ‘건조’ 형태로 가장 많이 판매

▶ 독일 해조류 제품 제형 중 ‘건조’ 키워드 빈도수 1위

- ‘건조’ 키워드, 독일 현지 온라인 판매 해조류 제형 키워드 중 빈도수 283건으로 최다 빈출했으며, 미역을 건조하여 파스타로 만든 제품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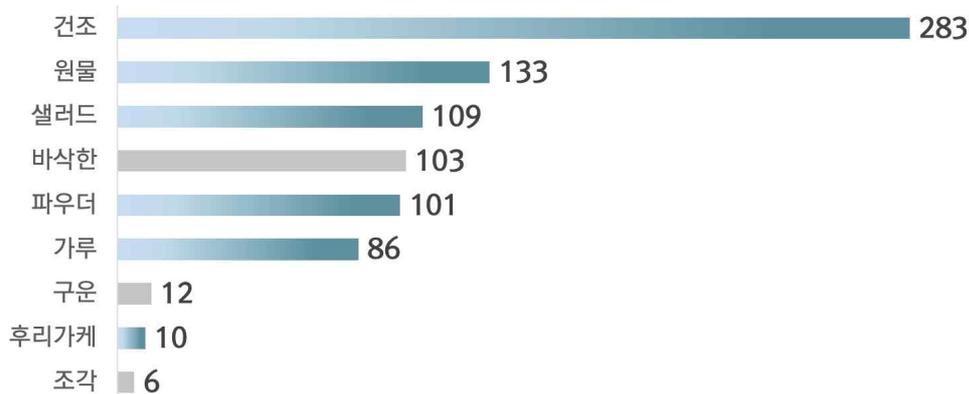
▶ ‘건조’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해조류 가공품 판매 중

- 다음으로, ‘원물’ 키워드 133건으로 빈도 2위, ‘샐러드’ 키워드가 109건으로 빈도 3위를 차지하며 신선 해조류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

- 이외에도 파우더나 가루, 후리가케 등의 형태로 해조류 가공품 판매 중

1위 건조		3위 샐러드		8위 후리카케	
					
브랜드	웰팩(WEL-PAC)	브랜드	이어파흐게세프트클라센 (Ihr Fachgeschäft Klaassen)	브랜드	나가타니엔(Nagatanien)
분류	툇	분류	해초 샐러드	분류	후리카케
용량	2 oz(약 57.6g)	용량	500g	용량	25g
가격	3.29유로(4,481원)	가격	21.95유로(2만 9,893원)	가격	8.95유로(1만 2,189원)

[표 3.4] 독일 건조 툇 제형 관련 키워드



자료: 독일 온라인 몰 판매 ‘해조류’ 제품 분석



IV. 유통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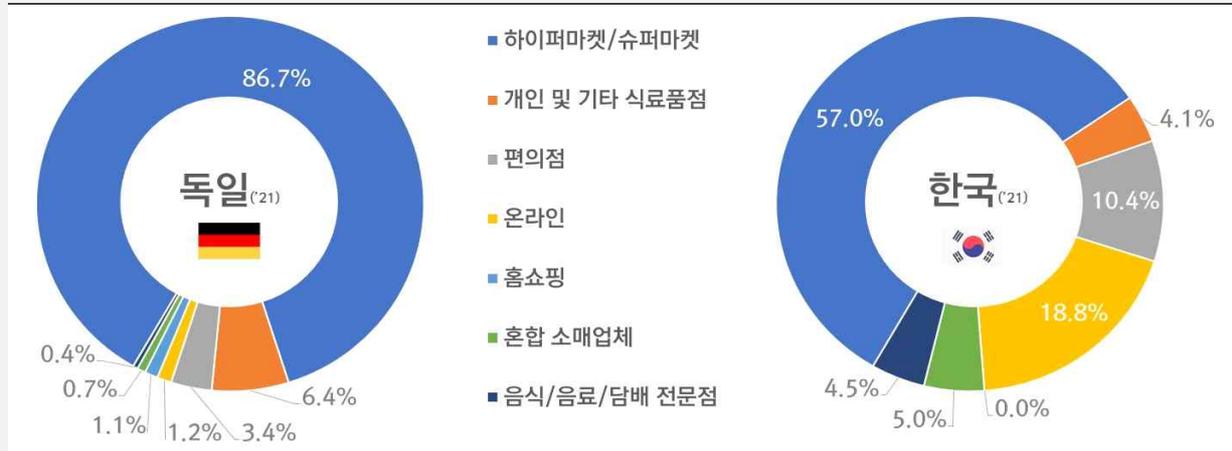
1. 독일 건조 톳 유통채널 비교
2. 독일 건조 톳 유통채널 특징
3. 독일 건조 톳 B2B 유통채널
4. 독일 건조 톳 B2C 유통채널

1. 독일 건조 톳 유통채널 비교

▶ 독일 ‘하이퍼마켓/슈퍼마켓’ 점유율 86.7%로 압도적 비율 차지

2021년 독일 ‘가공육, 수산가공품 및 육류대체품’은 ‘하이퍼마켓/슈퍼마켓’ 채널을 통해 전체의 86.7%가 유통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됨. 이외의 유통채널은 모두 한 자릿수의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점유율 기준 2위 ‘아시안마트/한인마트’를 포괄하는 ‘개인 및 기타 식료품점’이 6.4%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3위인 ‘편의점’은 3.4%의 점유율을 차지함. 반면에 한국은 ‘하이퍼마켓/슈퍼마켓’을 통해 57.0%가 유통되었으며, 이외에도 ‘편의점’(10.4%)과 ‘온라인’(18.8%) 채널이 두 자릿수 점유율을 보임

[표 4.1] 독일 건조 톳 소매유통채널 점유율



독일 및 한국 소매유통채널 점유율^{11)12) 비교¹³⁾}

독일	유형	한국
86.7%	하이퍼마켓/슈퍼마켓 ¹⁴⁾	57.0%
6.4%	개인 및 기타 식료품점 ¹⁵⁾	4.1%
3.4%	편의점 ¹⁶⁾	10.4%
1.2%	온라인	18.8%
1.1%	홈쇼핑	0.0%
0.7%	혼합 소매업체	5.0%
0.4%	음식/음료/담배 전문점	4.5%

자료: 유로모니터(Euromonitor)

11) 2021년 기준, 독일 및 한국 ‘가공육, 수산가공품 및 육류대체품(Processed meat, seafood and alternatives to meat)’의 소매유통채널 점유율임

12) ‘건조 톳’의 세부 품목에 대한 유통채널 정보 확인이 불가하여, 제품의 상위 카테고리인 ‘가공육, 수산가공품 및 육류대체품(Processed meat, seafood and alternatives to meat)’의 정보를 확인함

13) 각 점유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총합이 100.0%에서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14) 본 보고서에서 ‘하이퍼마켓/슈퍼마켓’은 ‘할인점(Discouters)’을 포괄함

15) 본 보고서에서 ‘개인 및 기타 식료품점’은 ‘아시안마트/한인마트’를 포괄함

16) 본 보고서에서 ‘편의점’은 ‘주유소매점(Forecourt Retailers)’을 포괄함

2. 독일 건조 톳 유통채널 특징

1) 하이퍼마켓/슈퍼마켓

- ▶ **독일 주요 하이퍼마켓/슈퍼마켓 업체, 에데카젠헨트랄레 및 레베그룹**
 독일 주요 하이퍼마켓/슈퍼마켓 업체 에데카젠헨트랄레(Edeka Zentrale)는 2021년 기준 독일 하이퍼마켓/슈퍼마켓 전체 매출액 1,955억 7,100만 유로(약 266조 3,422억 원¹⁷⁾)의 28.0%를 점유하였으며, 레베그룹(Rewe Group)은 전체 매출액의 23.1%를 점유함
- ▶ **독일 하이퍼마켓/슈퍼마켓의 신(新) 트렌드 따라잡기¹⁸⁾¹⁹⁾²⁰⁾²¹⁾**
 식품 및 음료 부문에서의 비건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유기농 및 친환경, 상품군의 다양성 등을 컨셉으로 내세운 슈퍼마켓 채널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음. 특히, 독일 내 비건 성향의 소비자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련 상품의 성장도 기대되는 부분임. 다만,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독일 또한 소비자가격 민감도가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할인점 채널의 약진이 다시금 예측됨.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한국산 수산식품 ‘김’은 주요 하이퍼마켓/슈퍼마켓이나 아시안 식품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주로 유통업체의 OEM 방식으로 수입되고 있음

[표 4.2] 독일 주요 하이퍼마켓/슈퍼마켓 업체

순번	기업명	하이퍼마켓/슈퍼마켓 매출액 점유 ⁽²¹⁾²²⁾	산하 주요 브랜드
1	에데카젠헨트랄레 (Edeka Zentrale)	28.0%	네토마르켄디스카운트(Netto Marken-Discount), 막트카우프(Marktkauf), 에데카(Edeka)
2	레베그룹 (Rewe Group)	23.1%	페니마켓(Penny Market), 레베센터(Rewe Center), 레베시티(Rewe City), 레베(Rewe), 레베나카우프(Rewe Nahkauf)
3	슈바츠베타일리공스 (Schwarz Beteiligungs)	21.1%	리들(Lidl), 카우프란트(Kaufland)
4	알디그룹 (Aldi Group)	16.1%	알디(Aldi)
5	글로부스홀딩 (Globus Holding)	2.1%	글로부스막수스(Globus - Maxus)

자료: 유로모니터(Euromonitor)

17) 1유로=1,361.87원(2022.07.01., KEB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18) 유로모니터(Euromonitor), 「Supermarkets in Germany Country Report」, 2022.02

19) 유로모니터(Euromonitor), 「Discounters in Germany Country Report」, 2022.02

20) 유로모니터(Euromonitor), 「Processed meat, seafood and alternatives to meat in Germany Country Report」, 2022.02

21) 한국수산경제, 「독일의 김 시장 동향」, 2022.02

22) 독일 하이퍼마켓/슈퍼마켓 점유율 부문 상위 5개 기업

2) 아시안마트/한인마트

▶ 독일 주요 아시안마트/한인마트, 고아시아 및 한독마트

독일 내 아시안마트/한인마트는 베를린,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암마인을 중심으로 독일 전역에 포진해있으며, 대다수 업체가 배달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아시안 음식 인식 제고로 다양한 채널 통해 현지 소비자 접근²³⁾²⁴⁾²⁵⁾

최근 독일에서 아시안 음식은 간단하고 건강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메뉴로 인식되며 인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존에는 라면이 대표적인 아시안 음식이었다면, 컵밥과 같은 다양한 가정 간편식 제품도 활발히 판매되고 있음. 다만, 유럽 내 한국 식품 수입유통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 현지에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좀 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나 현지인 맞춤 패키징 및 광고 등과 같은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함

[표 4.3] 독일 주요 아시안마트/한인마트 업체

순번	기업명	설립연도	매장 수('21)	거점 지역
1	고아시아 (Go Asia)	2009년	(30개, 온라인 몰 운영)	독일 전역
2	한독마트 (HanDok Kaufcenter GmbH)	1995년	(2개, 온라인 몰 운영)	프랑크푸르트암마인
3	와이마트 (Y-mart)	(-)	(1개, 온라인 몰 운영)	프랑크푸르트암마인
4	프레시아시아 (FreshAsia)	2002년	(1개, 온라인 몰 운영)	뒤셀도르프
5	김스아시아 (Kim's Asia)	1979년	(1개, 온라인 몰 운영)	뒤셀도르프
6	케이몰 (K-mall)	2015년	(-, 온라인 전용)	프랑크푸르트암마인
7	케이숍 (K-Shop)	2019년	(-, 온라인 전용)	프랑크푸르트암마인

자료: 기업 홈페이지,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

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독일, 한국 식품 자금이 진출 적기」, 2020.08

2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2021년 유럽 주요국 외식산업 현황과 한국식품 진출전략」, 2021.09

25) 식품음료신문, 「유럽 'K-푸드' 건강식으로 급부상, 식재료도 진출 가능성 커져」, 2021.10

3) 수산물 전문점

▶ 독일 주요 수산물 전문점, 노르트제 및 미테메어²⁶⁾²⁷⁾²⁸⁾²⁹⁾

독일 소비자들은 주로 할인점을 비롯한 하이퍼마켓/슈퍼마켓 채널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며, 이러한 경향은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또한, 현지 소비자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높은 의식이 반영돼, 수산물 구매 시 건강 및 환경 관련 인증 취득 여부가 주요 고려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주요 유통채널에서 대체 연어를 만들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GMO프리 연어 PB상품을 출시하기도 함. 또한, 독일은 물류가 굉장히 발달해있고 중간 도매업체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대부분의 외식업체 및 소매 유통채널은 이러한 도매업체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점에서 도매 및 소매 거래 모두에서 수산시장(도매시장)의 영향력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보임. 또한, 대형 유통채널 이외 수산물 전문 판매점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독일 내 수산물 판매 전문점에는 신선 수산물은 물론 수산물 기반 조리 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노르트제(Nord See), 지중해 기반 프리미엄 슈퍼마켓으로 포지셔닝 한 미테메어(Mitte Meer), 일본 및 한국 수산물 전문 판매점인 대양(Daeyang), 그리고 도이체제(Deutsche See) 등이 있음

[표 4.4] 독일 주요 수산물 전문점

순번	기업명	위치	매장 수('21)	홈페이지
1	노르트제(Nord See)	독일 전역	315개	www.nordsee.de
2	미테메어(Mitte Meer)	베를린 (Berlin)	5개	shop.mitte-meer.de
3	대양(Daeyang)	뒤셀도르프 (Düsseldorf)	1개	www.dae-yang.online
4	도이체제(Deutsche See)	베를린 (Berlin)	-	www.deutschese.de

자료: 기업 홈페이지

26) 유럽수산물시장관측소(EUMOFA), 「Country Report - Germany」, 2022.03

27) 미농무성(USDA), 「Fish and Seafood Market Report - Germany」, 2018.04

28) 씨푸드소스(SeafoodSource), 「Lidl Germany obtains GMO-free salmon certification」, 2019.12

29) 수산물수출정보포털(KMI), 「주요국 수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 독일」, 2018.08

3. 독일 건조 톳 B2B 유통채널 ① 피쉬마크트함부르크

기업 기본 정보	기업명	피쉬마크트함부르크(Fischmarkt Hamburg)		
	기업구분	도매시장		
	홈페이지	www.hamburg.de/altona/fischmarkt		
	위치	함부르크(Hamburg)		
	규모	매출액('21)	3,810만 유로(약 519억 원) ³⁰⁾	
	기업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해운물류 기업인 함부어거하펜운트로기스틱아게(Hamburger Hafen und Logistik AG) 산하 부동산 섹터에 포함된 피쉬마크트함부르크-알토나게엠베하(Fischmarkt Hamburg-Altona GmbH)에서 운영하고 있음 현재 부동산 섹터는 부동산(Real Estate), 수산물 무역(Seafood Trading), 수산물 프로세싱(Seafood Processing)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음 		
매장정보	주요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주 일요일 운영함 피쉬마크트함부르크에는 약 120여 개의 업체에서 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0여 명이 근무 중임 		
	매장 전경			
협력방법	소싱제품	- 각종 수산물		
	등록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의 사항 연락처 - 홈페이지 (www.fischmarkt-hamburg.de/en/fischmarkt/contact/contact-form.html) - 이메일(Fish Trading): seafood@fischmarkt-hamburg.de - 이메일(General): info@fischmarkt-hamburg.de - 전화번호(Fischmarkt Hamburg-Altona GmbH): 040-3088-7800 		

자료: 피쉬마크트함부르크(Fischmarkt Hamburg)

사진 자료: 피쉬마크트함부르크(Fischmarkt Hamburg), 함부어거하펜운트로기스틱아게(Hamburger Hafen und Logistik AG)

30) FHA가 속하는 HHLA 부동산 섹터의 매출액이며, 그룹의 2021년 전체 매출액 중 2%를 차지함

4. 독일 건조 톳 B2C 유통채널 ① 에데카

기업 기본 정보	기업명	에데카(Edeka)		
	기업구분	하이퍼마켓/슈퍼마켓		
	홈페이지	www.edeka.de		
	위치	베를린(Berlin)		
	규모	매출액('20)	610억 유로(약 83조 741억 원)	
	기타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장 수('20): 약 1만 1,110개 직원 수('20): 약 40만 2,000명 		
기업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데카 마켓(Market), 센터(Center), 익스프레스(Express) 등 다양한 형태의 매장 운영 약 3,700개의 공급업체 보유, 각 매장별 현지 공급업체와 계약 체결 에데카24(EDEKA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 독일 내 7개의 지역별 회사로 나누어 운영 			
매장정보	입점가능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선식품, 즉석식품, 냉동식품, 음료류, 주류, 소스류, 스낵류, 생활용품 등 		
	선호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선식품, 즉석식품 		
	매장 전경	 		
협력방법	등록 방법 및 등록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를 통한 입점 문의 (www.edeka.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왼쪽 하단의 'Kontakt' 클릭 홈페이지 기입 정보 담당자명,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 문의사항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메일: info@edeka.de 전화: +49-49-40-63-77-0 		

자료: 에데카(Edeka)

사진 자료: 드림스타임(Dreamstime), 에데카(Edeka), 옥타라이트(Oktalite)

4. 독일 건조 톳 B2C 유통채널 ② 레베

기업 기본 정보	기업명	레베(Rewe)	
	기업구분	하이퍼마켓/슈퍼마켓	
	홈페이지	www.rewe.de	
	위치	베를린(Berlin)	
	규모	매출액('20) 753억 유로(약 102조 5,488억 원) 기타 규모 • 매장 수('20): 약 3,600개 • 직원 수('20): 약 38만 3,900명 ³¹⁾	
기업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6년 설립됨 • 레베(Rewe) 그룹의 자회사로, 이외에 레베시티(Rewe City), 레베센터(Rewe Center) 등 다양한 형태의 매장 운영 중 • 자사 유기농 브랜드 레베비오(Rewe Bio) 보유 • 상하이, 방콕, 홍콩 등 지역 구매 관리 본부를 통해 다양한 아시아 식품 수입 		
매장정보	입점가능품목	• 신선식품, 유제품, 면류, 차(茶)류, 음료류, 소스류, 유아용품, 주방용품 등	
	선호제품	• 유기농 식품, 신선식품, 패키징 형태의 상품	
	매장 전경	 	
입점 등록 절차	등록 방법 및 등록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을 통한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시 필요한 일반적 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급자 정보 (공급자 이름, 주소, 연락 담당자,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② 공급 제품 정보 (브랜드 이름, 제품 이름, 제품 사진, 판매 가격, 할인가, 소비자가격 등) ③ 참고자료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등) • 문의사항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support@supplier.rewe-group.com - 전화번호: +49-221-149-0 	

자료: 레베(Rewe)

사진 자료: 리테일디테일이유(RetailDetail EU), 레베(Rewe)

31) 레베그룹(Rewe Group) 리테일 부문 전체 직원 수

4. 독일 건조 톳 B2C 유통채널 ③ 고아시아

기업 기본 정보	기업명	고아시아(Go Asia)		
	기업구분	아시안마트/한인마트		
	홈페이지	www.goasia.net		
	위치	베를린(Berlin)		
	규모	기타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수('21): 700명 • 매장 수('21): 30개 	
	기업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설립된 아시아 식료품 전문점으로, 한국/일본/중국산 제품 판매 중 • 온라인몰을 통해 50유로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서비스 제공 중 • 다양한 아시아산 수산물 관련 제품 및 스낵 판매 중 		
매장정보	입점가능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식품, 즉석식품, 스낵류, 음료류, 건강식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등 		
	선호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산 제품, 건강한 제품, 즉석 식품 		
	매장 전경	 		
입점 등록 절차	등록 방법 및 등록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을 통한 입점 문의 - 등록 시 필요한 일반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급자 정보 (공급자 이름, 주소, 연락 담당자,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② 공급 제품 정보 (브랜드 이름, 제품 이름, 제품 사진, 판매 가격, 할인가, 소비자가격 등) ③ 참고자료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등) • 문의사항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service@goasia.net - 전화번호: +49-6173-60-888-99 		

자료: 고아시아(Go Asia)

사진 자료: 고아시아(Go Asia)

4. 독일 건조 톳 B2C 유통채널 ④ 와이마트

기업 기본 정보	기업명	와이마트(Y-mart)	
	기업구분	아시아마트/한인마트	
	홈페이지	www.Y-mart.de	
	위치	프랑크푸르트암마인(Frankfurt a.M.)	
	규모	기타 규모 • 매장 수('20): 1개	
	기업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내 대형 한인마트로, 매장이 깔끔하고 다량의 물건이 구비되어 있어 평이 좋음 • 제품의 90% 이상이 한국 제품으로 이뤄진 한인마트이며, 한국 신제품도 다수 구비되어있음 • 2021년 11월 부로 70유로 이상 온라인 물 주문 시 배송/배달/픽업 서비스 제공 	
매장정보	입점가능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식품, 즉석식품, 가공식품, 육류, 냉동식품, 스낵류, 반찬류, 식기, 서적 등 	
	선호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식품 	
	매장 전경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입점 등록 절차	등록 방법 및 등록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을 통한 문의 - 등록 시 필요한 일반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급자 정보 (공급자 이름, 주소, 연락 담당자,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② 공급 제품 정보 (브랜드 이름, 제품 이름, 제품 사진, 판매 가격, 할인가, 소비자가격 등) ③ 참고자료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등) - 이메일: info@Y-mart.de - 전화번호: +49-69-3003-899-0 - 팩스: +49-69-3003-899-29 	

자료: 와이마트(Y-mart)

사진 자료: 와이마트(Y-mart), 구글맵(Google Maps)

4. 독일 건조 톳 B2C 유통채널 ⑤ 미테메어

기업 기본 정보	기업명	미테메어(Mitte Meer)	
	기업구분	수산물 전문점	
	홈페이지	www.shop.mitte-meer.de	
	위치	베를린(Berlin)	
	규모	기타 규모 • 매장 수('21): 5개	
	기업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베를린에서 설립됨 • 이탈리아를 포함한 지중해 음식 전문 판매점으로, 신선 수산물은 물론 냉동 수산물, 기타 지중해 음식 재료, 향신료 등을 함께 판매함 • 현재 뮌헨 1지점을 포함하여 총 5개 지점을 운영 중임 • 온라인 몰 운영 중이며 100유로 이상 구매시 DHL을 이용한 무료 배송 서비스 제공 중 	



매장정보	입점가능품목	• 즉석식품, 신선식품, 주류, 향신료, 소스, 파스타, 냉동식품 등	
	선호제품	• 신선 수산물, 와인류	
	매장 전경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입점 등록 절차	등록 방법 및 등록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 (shop.mitte-meer.de/kontaktformular) - 등록 시 필요한 일반적 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급자 정보 (공급자 이름, 주소, 연락 담당자, 전화번호 및 이메일, 매출액, 주요 고객 등) ② 공급 제품 정보 (주요 시장, 브랜드 이름, 제품 이름, 제품 포트폴리오, 최소 주문 수량 등) ③ 참고자료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	---------------------	---

자료: 미테메어(Mitte Meer)

사진 자료: 미테메어(Mitte Meer)

4. 독일 건조 톳 B2C 유통채널 ⑥ 도이체제

기업 기본 정보	기업명	도이체제(Deutsche See)	
	기업구분	수산물 전문점	
	홈페이지	www.deutschesee.de	
	위치	브레머하펜(Bremerhaven)	
	규모	기타 규모 • 직원 수('21): 약 1,800명	
	기업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9년 독일의 항구도시 브레머하펜에서 설립됨 • 독일 주간지 레벤스미텔짜이퉁(Lebensmittelzeitung)에서 선정하는 브랜드 대상 인증인 탑마르케2022(Top Marke 2022)에 포함됨 • 1년에 약 100여 가지의 신상품을 출시함 •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현재 소비자 대상 판매를 위한 온라인 몰 운영 중 	

매장정보	입점가능품목	• 수산물, 육류, 소스류, 향신료, 수산물 기반 조리식품, 냉동식품 등
	선호제품	• 고품질 제품, 신선한 제품

입점 등록 절차	등록 방법 및 등록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 (www.deutschesee.de/kontak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기입 정보: 이름, 이메일, 문의내용 • 유선 연락 또는 이메일을 통한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시 필요한 일반적 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급자 정보 (공급자 이름, 주소, 연락 담당자,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② 공급 제품 정보 (브랜드 이름, 제품 이름, 제품 사진, 판매 가격, 할인가, 소비자가격 등) ③ 참고자료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등) • 문의사항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번호: +49-471-98-199-20 - 이메일: info@deutschesee.de
-------------	---------------------	--

자료: 도이체제(Deutsche See)
 사진 자료: 도이체제(Deutsche See)



V. 진입장벽

1. 건조 톳 통관 및 검역 절차
2. 건조 톳 수출 전 사전 준비
3. 건조 톳 국내 수출 신고 및 통관
4. 건조 톳 국내 수출 검역 및 검사
5. 건조 톳 독일 수입 신고 및 통관
6. 건조 톳 독일 수입 검역 및 검사

1. 건조 톳 통관 검역 및 절차³²⁾

▶ 독일 건조 톳 수출 시, 통관 절차별 참고사항

독일로 건조 톳 수출 시 수출업자 세관등록이 필요하며, 발급된 등록번호는 EU 공통 등록번호로 다른 EU 국가에서도 사용 가능함. 유럽연합 식품 위생 규정, 라벨링, 통관 검역 등에 관한 규정이 강화 추세이므로 현지 긴급 검역, 검사 강화, 통관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 전 철저한 규정 숙지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표 5.1] 독일 건조 톳 통관 검역 절차³³⁾



자료: 관세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32) 해당 내용은 국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니 최신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3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74조에 따르면,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가공시설 등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해당 시설에서 생산·가공·출하하는 수산물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해당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음

2. 건조 톳 수출 전 사전 준비

▶ 독일 건조 톳, 직접 통관 진행 시 EORI 번호 발급 **必**

EORI(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Identification)는 경제사업자 등록 및 식별번호로 직접 통관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체 및 개인은 모든 세관 절차에서 식별번호로 EORI 번호를 사용해야 함. 2009년 7월부터 EU 수출입업자는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 EU 공동의 세관등록번호인 EORI를 의무로 사용해야 함. 한 EU 회원국 세관 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 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번호를 받을 필요 없음. 고객사가 독일로 건조 톳 수출 시 직접 통관을 하려는 경우, 한국이 비EU 회원국이기 때문에 독일의 세관 당국에 EORI 번호 할당을 요청해야 함³⁴⁾

[표 5.2] EU 경제사업자 등록 및 식별번호(EORI)

EORI(경제사업자 등록 및 식별번호) 정보			
번호명	EORI	발급 성격	EU 내 수출입업체 식별번호
양식	국가코드 2자리 + 숫자 10자리	발급 기관	해당 국가 관세당국 또는 유럽연합 관세당국
신청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관세청의 시민 및 기업 고객 포털(www.zoll-portal.de)에서 서비스 계정 설정 필요 서류 : ELSTER 인증서(www.elster.de) 관세청에서 세부 정보 확인 후 시민 및 기업 고객 포털의 전자 메일함에서 자동으로 성공 메시지를 수신하고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알림을 받게 됨 또는, 독일 관세청 홈페이지 내 0870 양식을 다운받아 전자 메일(PDF 문서), 서면 또는 팩스를 통해 GZD-DO Dresden-Master Data Management로 보내야 함 		
소요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완료 시점으로부터 최대 30일 EORI 번호는 EU회원국 통합이기 때문에 EU국가 중 어느 한 국가에서 발급받았을 경우 그 번호가 계속 유효하며 중복신청 불가함 		

자료: 독일 관세청

3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제사업자 등록 및 식별번호(EORI)

▶ **건조 톳, 국내 수출업체 AEO 등록 시 EU 통관 혜택 多**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라는 뜻으로 수출입기업, 운송인, 창고업자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 중 관세 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해 심사하고 공인한 기업을 의미함. AEO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 절차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사회 안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려는 것이 제도의 핵심임. AEO 기업에는 물품 검사비율이 축소되고 서류 제출이 생략되어 물류 흐름이 원활해지며, 각종 관세조사 원칙적 면제, 수입 신고 시 담보 생략으로 인한 자금부담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음. 독일의 경우 AEO 제도 시행국가로 우리 수출 물품이 상대국 수입통관 시 검사 생략, 검사 선별 시 우선 검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표 5.3]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 정보

정의	수출입기업,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 중 관세 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해 심사를 통해 공인한 기업	
적용 대상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AEO 혜택	세관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검사율 축소, 서류 심사 간소화, 세관 연락관 활용 등 신속통관 혜택 AEO 제도 시행국가들과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게 되면 검사 생략, 검사 선별 시 우선 검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국의 세관 당국에서도 천재지변, 국경폐쇄 등 비상시 AEO 화물을 우선 조치·통관해 줌 통관 애로 사항, 무역장벽을 해소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AEO를 통해 법규준수, 안전관리 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어 거래선 유지 확보 등에서 이점이 있음
	비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입 시 신속통관 편의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받게 되어 국제 무역 거래 진행의 리드 타임과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내부 관리 능력이 제고되어 물품의 정기운송률이 높아지고, 손실 방지와 재고 화물 감소 등을 통해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함
신청방법	1단계(공인신청) : 신청업체가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서 제출	
	2단계(공인심사) : 서류 심사(60일 이내), 현장심사(60일 이내)	
	3단계(AEO 공인심의위원회) : 공인 여부, 등급조정, 공인취소 및 유보 결정	
	4단계(종합심사) : 5년 주기, 서류+현장심사, 기준유지 점검(통관 적법성 포함)	

자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관세청

▶ 독일 건조 톳, HS CODE 및 관세율 확인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동통상정책을 준수하며 독일에서 특정 재화에 부과하는 관세율도 EU 공동관세율표(Common Customs Tariff)에 근거함. 수입 물품에는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와 일부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부과됨. 부가가치세는 현행 최소표준세율(Minimum standard rate)인 15%로 정하고 있으며, 특정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5% 또는 그보다 높은 경감세율(reduced rate)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독일로 건조 톳 수출 시, 세율은 한·EU FTA 관세율이 적용되며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함³⁵⁾

[표 5.4] 건조 톳 HS CODE

건조 톳 HS CODE 품목 정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		
건조 톳 한국 HS CODE	2008.99-5090 (조제한 식용 해초류 - 기타)		
건조 톳 독일 HS CODE	2008.99-9990		
관세	1순위 한·EU FTA	2순위 잠정세율	3순위 기본세율
	0%	0%	18.4%
톳 HS CODE 품목 정의	이 호에는 모든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식용가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함. 이들은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이나 잘게 부순 것일 수 있음. 이 호에는 해초류의 거친 가루[조분(粗粉)]와 그 밖의 조류의 거친 가루도 포함함. (여러 다른 종류의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의 혼합물로 구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톳 한국 HS CODE	1212.21-3010 (톳 건조한 것)		
톳 독일 HS CODE	1212.21-0000		
관세	1순위 한·EU FTA	2순위 기본세율	
	0%	0%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3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가가치세에 대한 실행계획(Action plan on VAT), 2016

▶ 독일 건조 톳, 적용받는 필수 인증 無

독일로 건조 톳 수출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다만, EU의 유기농 인증과 독일 환경청의 유기농 인증을 받아 활용할 수 있음. 독일 식품 농업부는 2025년까지 공공시설의 유기농 점유율을 20%까지 증가하는 등 친환경 장려 정책을 추진 중임. 또한, 유럽의 식품 업체는 여러 민간 인증기관을 통해 비건과 유기농 로고를 부여받고 부착하는 상황이므로 고객사가 취득한 FSSC 22000과 더불어 글로벌 인증을 받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함³⁶⁾

[표 5.5] 독일 건조 톳 인증 취득

인증명	인증 성격	인증 구분	인증 및 발급 기관	인증 Mark
FSSC 22000	식품 생산 안전 인증	글로벌 공통 인증	FSSC 지정 인증기관	
ISO 22000	식품 생산 안전 인증	글로벌 공통 인증	정부 지정 인증기관 또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기관	
IFS	식품 생산 안전 인증	글로벌 공통 인증	IFS 지정 인증기관	
BRCGS Food Safety	식품 생산 안전 인증	글로벌 공통 인증	영국 소매업 협회 (BRC, British Retail Consortium Standard) 지정 인증기관	
비건 소사이어티 (The Vegan Society Trademark)	비건 식품 생산 인증	글로벌 공통 인증	영국 비건 협회 (The Vegan Society) 또는 영국 비건 협회 한국 에이전트	
브이라벨 (V-Level)	비건 식품 생산 인증	글로벌 공통 인증	유럽 채식주의 협회 브이라벨 공식 홈페이지	

자료: 각 인증기관

36) 식품음료신문, 「독일, 유기농 식품 및 대체육 소비 급증」, 2021

▶ EU 및 독일 건조 톳 수출, 요오드 함량 준수 요

한국 등 비EU 회원국이 독일 등 EU 회원국으로 건조 톳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및 독일의 해조류 수입규정 숙지가 필요함. 유럽연합은 요오드에 대해 장기 과다 섭취는 갑상선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개인 건강상태에 따라 요오드의 비정기적인 단기 과다 섭취 역시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으로 이어져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로 규정함. 독일연방식품원(BZfE)에서는 해조류와 해조류 가공품의 요오드 함유량 표기를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비자들에게 요오드 함유량과 최대섭취량이 명확하게 표기된 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고함

[표 5.6] 유럽연합 및 독일 해조류 요오드 함량 규정³⁷⁾

구분	내용
<p>유럽연합 해조류 수입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EU 회원국은 '식품첨가물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2/46/EC)' 내 '유럽 식품첨가물 규정과 유럽 식품 안전 규정을 위한 일반원칙(Commission Regulation (EC) No 178/2002)'에 따른 식품법을 준수해야 함 • 해조류에 함유된 요오드는 과다 섭취 가능성이 큰 성분으로 분류되며 요오드의 최대첨가량도 최대 150~200마이크로그램(μg)으로 제한됨
<p>독일 해조류 수입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생선, 우유, 달걀 등에 들어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일상 식료품에서 자연스럽게 섭취되는 요오드의 일일 적정 섭취량은 200μg, 일일 최대섭취량은 500μg를 권장함 • 건조 해조류 상품에는 평균적으로 506,000$\mu\text{g}/\text{kg}$의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고 이를 10g 정도의 아주 적은 양만 섭취하더라도 이미 독일의 일일 권장 최대섭취량인 500μg의 10배가 넘는 양을 섭취하게 되므로 건강상의 위험이 따른다고 지적함 • 해조류를 판매할 때 “요오드의 과다 복용은 갑상선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이라는 경고 문구를 포함할 것을 권고함

자료: 독일연방식품원(BZfE),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

37)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 「Proposed maximum levels for the addition of iodine to foods including food supplements」, 2021

▶ EU 및 독일의 한국산 해조류 경고 사례

EU는 ‘식품안전신속경고를 위한 처리 규정(Commission Regulation (EU) No. 16/2011)’에 따라 유럽연합 가입국에 수입되는 식품과 일용품을 상시감독하고 있으며 경고 사항을 최대 48시간 이내에 EU 회원국과 해당 제품 수출국에 알림. 또한, 해조류를 타국가를 경유해서 독일로 수출하거나 독일을 경유해 타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경유국에도 해당 식품의 검역 내용을 알림

유럽연합 식품안전청(EFSA)이 운영하는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이 집계한 지난 5년(2015~2019년)간 국가별 통관거부 사례에 따르면, 가장 많은 통관거부가 발생한 국가는 독일로 확인됨. 총 33건의 통관거부 사례가 발생했으며, 통관거부 요인은 요오드 과다 검출이 30건, 카드뮴 검출 2건, 살모넬라균 검출 1건으로 집계됨. 독일에서 통관거부 처리된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이 30건 중 1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에서 공개한 독일 내 한국 해조류 경고 사례 중 요오드 함유량이 분석된 사례는 하기 표와 같음. 한국산 건조 해조류 제품 경고 사유는 요오드 함유량이 독일 요오드 일일 권장섭취량 20mg/kg을 초과하여 구금 처분된 것으로 확인됨³⁸⁾³⁹⁾

[표 5.7] 독일 내 한국 해조류 경고 사례

날짜	제품	경고 사유	요오드 함유량 (mg/kg)	처분
2018. 12. 28.	건조 해조류	요오드 과다 함유	261	운영자에 의해 구금됨
2018. 12. 3.	건조 해조류	요오드 과다 함유	72.51	운영자에 의해 구금됨
2018. 8. 22.	건조 해조류	요오드 과다 함유	5,605	운영자에 의해 구금됨
2018. 8. 21.	건조 해조류	요오드 과다 함유	59.1	운영자에 의해 구금됨
2018. 8. 16.	건조 해조류	요오드 과다 함유	347	운영자에 의해 구금됨
2018. 7. 6.	건조 해조류	요오드 과다 함유	373.5	운영자에 의해 구금됨

자료: EU 식품안전신속경고시스템(RASFF)

38) EU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 포털(RASFF portal)

39) 한국수산경제, 「EU 김 시장 현황 및 수출확대방안③」, 2021

▶ 독일 건조 톳 수출, 해조류 요오드 함량 이슈

해조류는 요오드 함량이 풍부한 식품으로 세부품목별 요오드 함량은 하기 표와 같음. 해조류는 대개 건조 상태로 수출하는데, 수분이 빠진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요오드 함량 측정 시 독일의 해조류 제한 규정인 20mg/kg을 훨씬 상회함.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식습관의 차이로 한국은 주로 해조류를 국과 같은 방식으로 조리해 섭취하지만, 독일은 국으로 해조류를 섭취하는 경우가 적음. 따라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오드 손실 등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요오드 함량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요오드가 풍부한 것은 해조류 고유의 특성이므로 요오드 함량을 낮출 방도는 달리 없으며 제품에 자체적으로 해조류 섭취 방법을 표시하는 것도 대응책이 될 수 있음. 요오드 함량으로 인해 제품이 수거될 경우 단순히 제품만 수거되는 것이 아니라 벌금도 함께 부과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⁴⁰⁾⁴¹⁾

[표 5.8] 국내 해조류 요오드 함유량

구분	대분류	소분류	평균치(최소~최대) (mg/kg)	구분	대분류	소분류	평균치(최소~최대) (mg/kg)
김	원재료	생물	2.26(1.34~3.25)	톳	원재료	생물	107(21.0~190)
		건조	51.6(12.8~174)			건조	313(66.8~584)
	가공	조미김	18.6(7.47~46.5)		가공	염장	58.2(45.1~68.0)
다시마	원재료	생물	13.4(2.88~28.8)	모자반	원재료	생물	13.8(12.5~16.3)
		건조	1,927(18.8~5,010)			건조	30.9(4.59~64.3)
	가공	염장	41.2(12.4~92.9)		가공	염장	24.7(19.5~36.6)
미역	원재료	생물	10.9(2.61~29.2)	파래	원재료	생물	9.50(1.23~16.3)
		건조	158(13.9~334)			건조	52.7(15.8~163)
	가공	염장	26.1(6.18~83.4)		가공	조미 파래김	16.3(5.13~32.6)
매생이	원재료	생물	2.94(0.33~9.11)				
		건조	37.4(9.06~79.8)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40) KOTRA, 「한국 해조류, 독일 입맛 공략 가속화」, 2019

41) EU 식품사료안전속경보시스템 포털(RASFF portal)

▶ 독일 건조 톳, EU 식품 라벨링 규정

유럽연합위원회의 식품표시정보시스템 내 ‘어업 및 양식 미가공품 및 일부 가공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은 하기 표와 같음. 모든 규정은 유럽연합위원회 법률 조항을 그 근거로 함. 또한, 현지 바이어가 해조류에 대해 식품 안전성 보장을 위하여 영양성분, 활성 성분, 수분함량, 오염물질, 잔여물 등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독일 시장에서는 해조류를 주로 유기농 업체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기농 제품의 생산 및 표시 규정을 준수하여 ‘Bio’ 로고를 부착해 판매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⁴²⁾

[표 5.9] 독일 건조 톳 라벨링

라벨 표시사항 및 기준	1. 제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이름은 법적 이름이어야 하나 그러한 이름이 없는 경우 관습적인 이름을 사용해야 하며, 관습적인 이름이 없는 경우 식품의 속성을 설명하는 명칭(descriptive name)을 사용해야 함 • 수산 제품에 대한 법적 명칭은 학명과 함께 상업적 명칭을 식품명으로 사용해야 함
	2. 성분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이라는 단어로 구성되거나 성분을 포함하는 적절한 제목이 앞에 와야 함 •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백분율과 함께 표시해야 함 • 완제품의 5% 이상의 원료만 순증량 순으로 기재해야 함 • 2% 넘지 않는 성분은 뒤쪽에 표기해야 함
	3. 첨가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 보조제, 캐리-오버(원료에서 이행된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첨가물은 표시 생략 가능함 • 중량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함
	4. 순증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게 단위로 kg(킬로그램) 또는 g(그램)로 표시해야 함 • 부피 단위는 ml(밀리리터), cl(센티 리터), l(리터)로 표시해야 함
	5. 보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에 특별한 보관조건 및 사용조건이 필요한 경우 그 조건을 표시해야 함 • 개봉 후 적절한 보관방법과 소비시간 제한을 함께 기재해야 함
	6. 원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제품의 원산지와 최종 제품에 포함된 주요 성분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주원료의 원산지를 기재하거나 ‘(주원료)는 (최종 제품의 원산지)에서 유래하지 않음’을 기재해야 함 • 최종 제품의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원산지 국기 등이 패키지에 표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규제의 대상이 됨

자료: 유럽연합위원회 식품표시정보시스템

42) KOTRA, 「한국 해조류, 독일 입맛 공략 가속화」, 2019

[표 5.9] 독일 건조 톳 라벨링

라벨 표시사항 및 기준	7. 조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리예시가 없어 적절한 식품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법을 명시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해야 함
	8. 사업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정보 제공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 또는 회사명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함 만일 그 회사가 유럽연합 내에 설립된 것이 아니라면 유럽연합 영내로 수입하는 수입업체를 기재해야 함
	9. 영양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 기재사항 : 열량,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 단백질, 나트륨 선택 기재사항 : 불포화지방, 폴리올, 전분, 식이섬유, 비타민 또는 미네랄 영양 정보는 100g 또는 100mL 기준으로 표기해야 함
	10. 유통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섭취기한 : Best before, Best before end와 같은 문구와 함께 ‘일, 월, 연도’를 기재해야 함 최소보존일 : Use by와 같은 문구와 함께 ‘일, 월, 연도’를 기재해야 함
	11. 알레르기 유발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시된 성분, 가공 보조제 또는 이들 성분에서 유래한 물질로, 식품 제조 또는 손질 과정에서 사용되고 어떠한 변형된 형태로든 완제품에 남아있다면 반드시 제품 성분 리스트에 포함해야 함 다른 성분들과 구분하여 강조할 때는 ‘Contains’라는 표현 다음에 알레르기 항원 인자 성분을 표기해야 함
	12. 어획 또는 생산지역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는 제품의 생산방법(어획, 담수, 양식)에 따라 다르며, 바다에서 어획된 제품의 경우 유럽 주변 해역 여부에 따라 다름 바다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경우 FAO 어업지역명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함. 다만, 동북대서양, 지중해, 흑해에서 어획된 경우 FAO 하위지역과 함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명칭을 기재하여야 함 민물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경우 어획된 국가명과 수역명을 기재해야 하며, 양식 어패류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육 또는 재배를 거친 국가명을 기재해야 함
	13. 제조 번호 (Lot 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조건에서 생산, 제조, 포장된 동일 식품군에 속한 판매 개체들의 총체로, 소비자가 사전포장 식품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게 함 다른 라벨 문구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L로 시작되어야 함 단, 유통기한이 라벨에 표시된 경우 제조 번호는 의무기재사항이 아님
	14. 표기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여러 언어의 병기도 가능함 스티커 형태의 라벨 부착이 가능함 유럽연합 가입국의 언어로도 추가 기재가 가능함
	15. 글자 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자 크기는 최소 1.2mm 이상이어야 함 단, 제품 면적이 80cm² 미만의 경우 글자 크기는 최소 0.9mm 이상이어야 함

자료: 유럽연합위원회 식품표시정보시스템

▶ 독일 건조 톳, 요오드 함유 문구 표기에 주의

독일은 요오드의 과다 섭취에 대해 건강상 위험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라벨링 시, 요오드 함유에 대한 표기 문구에 주의해야 함. 강제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사항은 하기의 표와 같음

요오드 함유 식품의 경우, 경고 문구 표기 시 ‘요오드의 과다 복용은 갑상선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요오드를 함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enthält Jod' 혹은 'reich an Jod'와 같은 요오드 함유 문구를 표기해야 함. 또한, 요오드 함유량에 대한 상세한 표기도 의무는 아니지만 권장됨

[표 5.10] 독일, 요오드 함유에 대한 라벨링 규정

품목	라벨링 표기 문구	선택/의무
해조류	‘요오드의 과다 복용은 갑상선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알리는 경고 문구 표시	선택
해조류 가공품 및 영양보충제	요오드를 함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요오드 함유’ 문구 표기 단, 요오드 함유량도 표기할 것을 권고하나 의무는 아님	선택

자료: 유럽연합위원회 식품표시정보시스템, EU 법령포털(EUX-LEX)

▶ 독일 건조 톳 라벨 샘플



[옆면 라벨링]

[뒷면 - 독문]

- ① E1032 Wel Pac Hijiki (Long) (X)
- ② Getrocknete Meeresalgen "Hijiki"
- ③ In Aquakultur gewonnen in der Republik Korea
- ④ Wissenschaftlicher Name: Hizikia fusiformis
- ⑤ Netto: 42,5g
- ⑥ Nährwerte / 100g
- ⑦ Energie 919kJ/220kcal
- ⑧ Fett 1.7g
- ⑨ davon gesättigte Fettsäuren 0.6g
- ⑩ Kohlenhydrate 27g
- ⑪ davon Zucker <0.5g
- ⑫ Eiweiß 11g
- ⑬ Salz 4.9g

[뒷면 - 국문]

- ① E1032 웰팩 히지키(롱) (X)
- ② 말린 김 “히지키”
- ③ 대한민국 양식업에서 얻은 것
- ④ 학명 : Hizikia fusiformis
- ⑤ 순중량 : 42.5g
- ⑥ 영양 100g
- ⑦ 에너지 919kJ/220kcal
- ⑧ 지방 1.7g
- ⑨ 포화지방 0.6g
- ⑩ 탄수화물 27g
- ⑪ 설탕 < 0.5g
- ⑫ 계란 흰자 11g
- ⑬ 소금 4.9g

- ⑭ Zubereitung :
 - 0,6g (ca. 1/2 TL) Wel-pac Hijiki 30 Min mit kaltem Wasser bedecken, anschließend gut abtropfen lassen.
 - Für Suppen, Salate, Fleisch- und Gemüsegerichte verwenden.
 - Reich an Jod! Meerealgen enthalten von Natur aus sehr viel Jod.
 - Ein Verzehr von mehr als 0.4g (1/3 TL) pro Tag kann zu gesundheitlichen Schäden (Schilddrüsenüberfunktion) führen.
- ⑮ Zubereitungsanleitung beachten.
- ⑯ Mindestens haltbar bis / LOT: siehe Verpackungsrand.
- ⑰ Trocken, kühl und lichtgeschützt lagern. Nach dem Öffnen in einem luftdichten Behälter aufbewahren und schnell verbrauchen.
- ⑱ Vertrieb durch : JFC Deutschland GmbH
- ⑲ Theodorstr. 293, 40472 Düsseldorf , Deutschland
- ⑳ Hergestellt in der Republik Korea

- ⑭ 준비 :
 - 웰팩 히지키 0.6g(약 1/2 작은술)을 찬물에 30분 정도 담갔다가 물기를 잘 뺀다.
 - 수프, 샐러드, 고기 및 채소 요리에 사용하십시오.
 - 풍부한 요오드! 해조류는 자연적으로 많은 양의 요오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 하루에 0.4g(1/3 티스푼) 이상을 섭취하면 건강문제(갑상선 기능 항진증)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⑮ 준비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⑯ 유통기한 / LOT : 포장 가장자리 참조
- ⑰ 건조하고 서늘하며 빛을 차단하여 보관하십시오. 개봉 후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빠르게 드십시오.
- ⑱ 배급 : JFC Germany GmbH
- ⑲ 테오도르스트르. 293, 40472 뒤셀도르프, 독일
- ⑳ 한국산

3. 건조 톳 국내 수출 신고 및 통관

▶ 독일 건조 톳, 국내 수출 신고 및 통관

독일로 식품 수출 시, 수출 공장 및 품목 등록을 마친 뒤, 국내 관세청으로 수출 신고·수출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함. 일부 선상 수출 신고, 현지 수출 어패류 신고, 원양수산물 수출 신고의 경우에는 선적 또는 수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관세청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름. 고객사 제품의 경우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위의 선상 수출 신고 혹은 원양수산물 수출 신고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표 5.11] 독일 건조 톳 국내 수출 신고

수출 신고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청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신고 • 수출 신고는 수출업체와 그를 대신하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완제품제공자 명의로 가능함 • 수출화주는 관세법에 따라 신고 및 제출한 자료를 수리일로부터 3년관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출신고필증 ② 수출품 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③ 수출 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④ 반송신고필증 등
수출 신고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품이 장치된 소재지의 관할세관장에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정확한 사실을 신고 • 수출 신고 후 관련 서류는 전자 제출 또는 전자 이미지 형태로 통관 시스템(UNIOPASS)로 전송 • 수출 신고 수리 후 전자 날인된 수출신고필증 수령 • 수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박 등 운송수단에 적재 필요

자료: 관세청

[표 5.12] 독일 건조 톳 국내 수출통관

<p>수출통관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범 물품 선별시스템, 무작위선별 방식에 의한 선별 또는 서류 심사 후 필요할 때, 물품 검사를 하며, 우범성이 낮은 경우에는 신속통관을 함 	
<p>수출통관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 신고 수출 물품 선별 후 서류 심사 또는 물품 검사 수출 신고 후 수리 선적 	
<p>서류 구비</p>	<p>수출 신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세관에 수출 신고 수리 요청 세관장은 신고 내용이 관세법상 적정 여부 판단 후 수리함 수출업체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통관 시스템에 전송 수출 신고서는 상업 송장과 포장명세서 등을 근거로 작성해야 함
	<p>선하증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주와 선박회사 간 체결한 해상운송 계약에 따라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물 적재 또는 영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
	<p>상업송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되는 물품의 특성과 내용 명세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한 서류 계약 물품의 정확한 규격과 수량, 포장상태, 확인 등을 상세하게 표시
	<p>포장명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 단위별 순중량·총중량, 확인, 포장 일련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

자료: 관세청

4. 건조 톳 국내 수출 검역 및 검사

▶ 건조 톳,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출 검역 및 검사 신청

질병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 대상으로 지정된 수산물에 대해 검역을 시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하기의 표와 같음. 고객사 제품의 경우, 수출 시 검역대상 지정검역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수출 수산물 검사는 수출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과 해양수산부 장관 고시 지정해역에서 생산 및 채취한 품목은 수출 검사 의무 대상임. EU 회원국의 경우 수산물(이매패류, 극피류, 피낭류 및 해양복족류 포함) 및 수산제품에 대해 검사를 요구함

[표 5.13] 독일 건조 톳 국내 수출 검역

<p>수출 검역대상 지정 수산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식용 수산 생물(정액 또는란을 포함) • 식용, 관상용, 시험 연구조사용 수산 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정액 또는란을 포함) • 수산 생물 제품 중 냉동 또는 냉장한 전복류 및 굴 • 수산 생물 전염병의 병원체 또는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가 들어있는 물건 • 냉동·냉장 새우류 등 	
<p>수출 검역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청서 접수 • 필요에 따라 서류검사(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성 검토), 임상검사(유형·행동, 외부조건 및 해부학적 소견, 종합소견), 정밀검사(병리조직학적, 분자생물학적 분석 등) 실시 • 검역 판정 후 검역증명서 교부 	
<p>검역 대상 전염병 목록</p>	<p>어류</p>	<p>유행성조혈기괴사증, 잉어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유행성궤양증후군, 자이로닥틸루스증,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연어알파바이러스병</p>
<p>검역 대상 전염병 목록</p>	<p>패류</p>	<p>보나미아감염증, 마르테일리아감염증, 퍼킨수스감염증, 제노할리오티스켈리모니엔시스감염증, 전복바이러스성폐사증</p>
<p>검역 대상 전염병 목록</p>	<p>갑각류</p>	<p>가재전염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노란머리병, 흰반점병, 타우라증후군, 전염성근괴사증, 희꼬리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 괴사성산취장염, 급성간취장괴사병</p>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표 5.13] 독일 건조 톳 국내 수출 검역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 동물을 수출하는 경우) • 검량 기관이 발행한 신청 중량 확인서(신청인의 희망에 한함)
수출 검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검역물에 대해 수입국에서 수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검역 면제 • 서류검사는 2일, 임상검사는 3일, 정밀검사는 15일 소요 • 신청 수수료 별도 발생하지 않으나 정밀검사 시행 시 비용 발생 • 검역 시행장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검역시행장 지정(변경) 신청서와 시설평면도, 검역시설 임대계약서,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수의사 또는 질병관리사 면허증사본을 첨부해 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처에 방문 제출해야 함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표 5.14] 독일 건조 톳 국내 수출 검사

수출 검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청서 접수 • 필요에 따라 서류검사(제품생산 일지, 분석일지 검토), 관능검사(형태, 설탕, 선별, 온도, 잡물 등), 정밀검사(무작위 표본 검사 - 세균수, 대장균, 중금속, 항생물질 등) 실시 • 검사 판정 후 합격 시, 검사 합격 증명서 교부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 검사신청서 1부 • 생산·가공일지 • 위임장 등
수출 검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제품의 포장에는 품명, 국가명, 생산·가공시설 명칭 및 등록번호 표기 • 검사 신청인 또는 수입국이 요청하는 기준·규격에 의한 검사는 그 기준·규격이 명시된 서류 또는 검사 생략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일반적으로 처리기한은 3일이며, 정밀검사 시행 시 7일 소요 • 자세한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 기준과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지정해역의 지정 고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 가능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5. 건조 톳 독일 수입 신고 및 통관

▶ 건조 톳, 수입 신고 및 통관 절차

독일의 식품 수입에 대한 통관은 유럽연합 관세청과 독일 관세청이 담당함. 독일로 건조 톳 수출 시, 고객사 소재국인 한국은 비EU 회원국이므로 독일 관세청에 수출업체 식별번호인 EORI 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식품 수입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전 AEO 등록도 가능함. 또한, 독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독일 도착 이전에 입항 개괄 신고를 위해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통보기한은 하기 표와 같음. 이후 수입 신고에 따른 통관 및 검역 검사를 마치게 되면 통관, 검역, 부두 사용료를 비롯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독일 내 유통이 가능해짐

[표 5.15] 독일 건조 톳 수입 신고 및 통관 절차

1. 물품 도착 및 수입신고 전 준비	수출업자 세관등록 (EO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ORI는 경제사업자 등록 및 식별번호로 거래를 원하는 사업체 및 개인은 세관 당국과 정보를 교환할 때 모든 세관 절차에서 식별번호로 EORI 번호를 사용해야 함 • 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 회원국에서 공통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번호를 받을 필요 없음 • 독일 관세청 사이트(www.zoll-portal.de)에서 신청 혹은 이메일 서류 제출로 신청 가능
	공인경제 운영자 (AE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EO 업체들에 대해서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혜택을 부여하여 차별적으로 위험을 관리함 •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국가와 거래 시 검사비용 축소와 같은 신속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받음 • 등록 절차 : 공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제출, 관세청장은 신청 서류를 토대로 심사 후 공인 여부 결정됨

자료: 관세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표 5.15] 독일 건조 톳 수입 신고 및 통관 절차

1. 물품 도착 및 수입신고 전 준비	입항개괄 신고 (적하목록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 전 적하목록 제출(ENS, Entry Summary Declaration) - 화물 상세 정보 제출(물품 명세, 수량 및 중량, HS Code, 컨테이너 번호, 위험품목 코드 등) - 화물 운송인, 송하인(수출업체), 수하인(수입업체), AEO 정보, 운송 항로 등 운항 정보 제출 																
		<table border="1"> <thead> <tr> <th>화물의 종류</th> <th>통보기한</th> </tr> </thead> <tbody> <tr> <td>장거리 컨테이너 해상화물</td> <td>출발지 선적 24시간 전</td> </tr> <tr> <td>장거리 벌크화물</td> <td>EU국가 최초항 도착 4시간 전</td> </tr> <tr> <td>단거리 해상화물</td> <td>EU국가 최초항 도착 2시간 전</td> </tr> <tr> <td>단거리 항공화물</td> <td>비행기 이륙 전</td> </tr> <tr> <td>장거리 항공화물</td> <td>EU국가 최초 공항 도착 4시간 전</td> </tr> <tr> <td>철도/운하운송 화물</td> <td>EU국가 세관 도착 2시간 전</td> </tr> <tr> <td>육로운송 화물</td> <td>EU국가 세관 도착 1시간 전</td> </tr> </tbody> </table>	화물의 종류	통보기한	장거리 컨테이너 해상화물	출발지 선적 24시간 전	장거리 벌크화물	EU국가 최초항 도착 4시간 전	단거리 해상화물	EU국가 최초항 도착 2시간 전	단거리 항공화물	비행기 이륙 전	장거리 항공화물	EU국가 최초 공항 도착 4시간 전	철도/운하운송 화물	EU국가 세관 도착 2시간 전	육로운송 화물	EU국가 세관 도착 1시간 전
		화물의 종류	통보기한															
		장거리 컨테이너 해상화물	출발지 선적 24시간 전															
		장거리 벌크화물	EU국가 최초항 도착 4시간 전															
		단거리 해상화물	EU국가 최초항 도착 2시간 전															
		단거리 항공화물	비행기 이륙 전															
		장거리 항공화물	EU국가 최초 공항 도착 4시간 전															
철도/운하운송 화물	EU국가 세관 도착 2시간 전																	
육로운송 화물	EU국가 세관 도착 1시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세관 당국이 검사 및 현장 출석에 관한 내용을 이메일로 통지함 • 수입 물품의 하역 또는 환적은 원칙적으로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관은 직권으로 수입 물품의 검사, 샘플 채취, 포장 개봉 등을 요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 전 물품 반입장소인 보세구역에 화물을 장치함 • 운송인 및 대리인, 통관 절차 대리인, 보세구역 운영인 등은 보세구역에 물품이 반입되는 즉시 도착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보세구역 임시장치 기간은 입항 개괄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해상화물 45일, 기타 화물은 20일까지임 •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시장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수입자는 해당 물품을 보세운송하여 사실 보세창고에 입고시키거나 반송, 멸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품의 화주(납세의무자), 수입 물품의 대리인(통관 대리인, 관세사)이 수입신고서를 서면 혹은 세관의 통관 시스템 전송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수입신고서는 EU 역내 어느 세관이나 단일 형식을 사용하고 있음 • 제출서류 : EU 수입신고서, 상업 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특혜관세 적용받을 경우) 동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의무자(화주)는 해당 화물이 보세구역에서 외부로 반출되기 전에 관세 0%, 부가가치세(VAT) 5~25% 등을 완납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함 • 일반적으로 관세, 특별세, 부가가치세는 통관 절차 때 지불함 • EU 역내의 식품 수입 관세는 동일하게 부과함 • 관세납부가 완료되면 세관에서 관세 영수증과 선하증권 원본을 수입업체에 전달함 																		

자료: 관세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6. 건조 톳 독일 수입 검역 및 검사

▶ 건조 톳, 독일 국경통제소(BCPs) 수입검사 거쳐야

유럽연합 전 회원국은 EU 식물검역지침에 정해진 규정에 맞춰 검역을 시행함. 수입업자는 유럽연합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식품 위생 인증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TRACES를 통해 위생 및 식물위생 증명서와 공식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수입국에 하역한 화물은 EU 회원국의 공식 수의사의 권한 하에 승인된 국경 검사소를 통해 EU에 입국해야 하며 국경 검사소에서 이루어지는 수입검사는 하기의 표와 같이 진행됨. 모든 화물이 물리적 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체계적인 문서 확인 및 신원 확인은 일반적으로 시행됨. 유럽연합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혹은 60일 내 수출국으로 조건부 회송됨. 유럽 국가에서 수출업자에게 부여한 요구사항 외에도 유럽 수입업자들이 수출업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며, 주로 수출기업과 생산 시설이 식품안전과 사회적, 환경적 책임에 대한 특정 표준에 부합한다는 증거를 요구함⁴³⁾

[표 5.16] 독일 건조 톳 수입검사

수입검사	서류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증명서 잔류량 검사서류 (양식 수산물)
	제품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안 검사 서류와 일치 여부 확인 (라벨링, 내용물 등)
	물리적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상태 운송 온도 실험 테스트 등

자료: 독일 국경통제소(BCPs), 수산물수출정보포털

[표 5.17] 독일 수입업자 추가 요구사항 항목

식품안전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BRC(British Retail Consortium), IFS(International Featured Standards) GFSI(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사회준수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SAI(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의 SA8000 표준 BSCI(Business Social Compliance Initiative)
지속가능성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GSSI(Global Sustainable Seafood Initiative)

자료: 유럽연합 개발도상국 수입촉진센터(CBI)

43) 유럽연합 개발도상국 수입촉진센터(CBI), What requirements should your product comply



VI. 수입·유통업체 인터뷰

Interview ① 제이에프씨인터내셔널유럽(JFC International Europe)

Interview ② 제이아이케이게엠베하아시안푸드(JIK Gmbh Asian Food)

Interview ③ 재팬파인코스트(Japan Feinkost)

Interview ① 제이에프씨인터내셔널유럽 (JFC International Europe)

44)

제이에프씨인터내셔널유럽 (JFC International Europe)

- 유형: 수입·유통업체
- 업체 특징:
 - 1979년 설립되었으며 독일 뒤셀도르프에 위치한 일본 식품 전문 수입유통기업
 -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역의 레스토랑, 호텔, 케이터링 회사, 전문 식품 매장 등에 고품질의 아시안 식재료를 납품하는 도·소매업체

담당자 정보

Manager



제이에프씨인터내셔널유럽(JFC International Europe) Manager

Q. 독일에서 해조류의 수요는 어떠한가요? 또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해조류는 무엇인가요?

독일에서는 해조류가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가진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체 단백질 시장이 성장하고, 소비자들의 건강의식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독일 소비자들에게 가장 수요가 높은 해조류는 미역과 김이고, 해당 재료를 사용한 해초 샐러드가 독일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Q. 톳에 대한 독일 소비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요?

톳은 독일에서 인기 있는 식재료는 아닙니다. 톳 제품의 주요 소비자는 대부분 해조류 제품을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독일 내 아시아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한정된 수요로 인해 향후 새로 수입한 톳 제품의 수요가 독일 시장에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Q. 독일에서 유통되는 톳 제품은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이며, 소비자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톳을 섭취하나요?

독일에서는 건조 가공된 톳 제품이 가장 익숙한 형태입니다. 독일 소비자들에게 톳은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재료는 아니지만, 보통 볶음요리에 넣거나 생선요리와 함께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현지 소비자들은 주로 어디에서 톳 제품을 구매하나요?

독일에서 톳은 다른 해조류만큼 쉽게 구하기는 어려우며, 주로 현지 일본 마트에서 톳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지 일본식 레스토랑에서도 톳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Q. 고객사 제품이 현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고객사 제품의 가격은 450g에 5.95유로(약 7,695원⁴⁵⁾)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독일의 톳 소비시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품 가격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의 셀링포인트 또한 현지에서 경쟁력이 있을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제품의 포장 및 가공형태는 업계 관행에 맞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Q. 현지 바이어들이 해조류를 수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현지 해조류 바이어들은 톳 제품의 비소 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제품의 생산 과정과 필요 인증 취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러나 언급했듯이 톳 제품의 기존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톳 제품의 수입이 결정되더라도 전망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Q. 고객사 제품을 수입할 의향이 있나요?

독일 내 톳 제품의 수요가 많지 않고, 저희가 판매 중인 유사제품보다 가격도 높기 때문에 고객사 제품을 수입할 의향은 없습니다.

Q. 독일로 수산가공식품, 김, 톳 등을 수출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독일에서는 톳의 비소 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수출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이 문제를 투명하게 다루어야 하며, 독일의 최종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5) 1유로=1,361.87원(2022.07.01., KEB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Interview ② 제이아이케이게엠베하아시안푸드 (JIK Gmbh Asian Food)

46)

제이아이케이
게엠베하아시안푸드
(JIK Gmbh Asian Food)

- 유형: 수입·유통업체
- 업체 특징:
 - 일본 식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아시아 식품 도매업체로, 유럽 전역에 정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향신료, 해조류, 주류 등 다양한 식품 부문을 비롯하여 식기, 찻잔, 주방용품 등의 비식품 부문도 취급하고 있음

담당자 정보

Store Manager



제이아이케이게엠베하아시안푸드(JIK Gmbh Asian Food) Sales Manager

Q. 독일에서 해조류의 수요는 어떠한가요? 또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해조류는 무엇인가요?

독일에서는 천연 보충제 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조류 시장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의 해조류 시장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어 소비자 수요가 제한적입니다. 독일 소비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해조류는 미역으로, 특유의 단맛과 부드러운 질감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Q. 톳에 대한 독일 소비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요?

톳은 다른 해조류에 비해 유명하지는 않지만, 건강에 이롭다고 알려지며 점차 인기를 얻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톳은 소화기관의 건강을 개선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철분과 칼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과 식이섬유를 함유하여 천연 보충제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면 독일의 톳 시장 전망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독일 소비자들에게는 일본산 톳이 가장 유명하며, 중국산 톳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일에서 톳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알려져 있으며 대체로 일본인과 한국인에게 수요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Q. 독일에서 유통되는 톳 제품은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이며, 소비자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톳을 섭취하나요?

독일 소비자들에게 톳은 비교적 새로운 식재료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다양한 레시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톳은 영양소가 풍부한 샐러드나 수프 요리의 재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Q. 현지 소비자들은 주로 어디에서 톳 제품을 구매하나요?

현지에서 톳은 주로 일본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독일 소비자들은 톳을 일본 식재료로 알고 있어, 일본 식료품점과 연계하여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에서 톳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은 아니지만, 아시안 마트뿐만 아니라 일반 슈퍼마켓 등 점차 다양한 매장에서 톳 제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Q. 고객사 제품이 현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고객사의 제품은 1kg당 9.95유로(약 13,551원)로 현지 경쟁제품 대비 확실히 비싼 가격으로, 고객사 제품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포장이나 용량 등 다른 요소들은 적절하게 설정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독일 소비자들은 환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유리나 종이 등의 친환경 포장 재질을 사용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Q. 현지 바이어들이 톳을 수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독일 바이어들은 톳을 비롯한 해조류 전반을 수입할 때 제품의 유통기한을 매우 중시합니다. 독일의 해조류 시장은 여전히 성장단계에 있어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영국 식품기준청(Food Standard Agency)에서는 톳의 무기 비소 함량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톳을 섭취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독일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현지 바이어들은 톳의 무기 비소 함량에 매우 민감한 편입니다.

Q. 고객사의 제품을 수입할 의향이 있나요?

고객사의 제품을 수입할 의향은 없습니다. 현지에서 톳은 영양소가 풍부한 해조류 식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독일 톳 시장은 초기 형성 단계로 수요가 적은 편입니다. 자사는 이미 톳 제품군에서 판매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소비자 수요에 알맞게 재고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Q. 독일로 수산가공식품, 김, 톳 등을 수출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톳 제품은 비소 함량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출 시 반드시 안전 수준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신 식품안전 관련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nterview ③ 재팬파인코스트(Japan Feinkost)

47)

●

재팬 파인코스트
(Japan Feinkost)

- 유형: 수입·유통업체
- 업체 특징:
 - 1953년에 함부르크에 설립된 일본식품 전문 수입 유통업체
 - 쌀, 소스, 차, 사케 등 다양한 일본 식품 뿐만 아니라 일본 식기류 등의 비식품도 취급하고 있음

담당자 정보

Sales Representative



재팬파인코스트(Japan Feinkost) Sales Representative

Q. 독일에서 해조류의 수요는 어떠한가요? 또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해조류는 무엇인가요?

독일에서는 건강에 좋은 식물성 식단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해조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조류는 다시마와 김입니다. 특히 김은 다시(Dashi)와 츠쿠다니(Tsukudani) 등 일식 요리 재료로 이용되며, 독일 내 일본 식당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Q. 독일에서 톳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어떠한가요?

독일에서는 톳의 건강 기능적 역할이 주목받고 있으며, 건조 시간이 짧고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능 해조류 식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미네랄과 풍부한 섬유질을 포함한 식재료로 인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톳은 아직 일본인과 한국인 소비자 외에는 식물성 식단에 관심 있는 소수의 독일인에게만 톳이 알려져 있어 시장 수요는 제한적입니다. 추가로, 톳은 현지 일본 식당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Q. 독일의 톳 주요 소비층은 누구인가요?

독일의 톳 수요층은 특정 소수 집단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독일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한국인 소비자나 현지 일본 식당에서 톳을 구매합니다. 또한, 식물성 식단을 찾는 독일인들도 톳을 구매합니다.

Q. 현지 소비자들은 주로 어디에서 해조류나 톳을 구매하나요?

톳은 주로 현지 일본 마트나 한국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톳은 시장 수요가 매우 적은 편으로, 다른 주요 식품매장에서는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독일에서 아시아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하이퍼마켓/슈퍼마켓과 같은 주요 소매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Q. 고객사 제품이 현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희가 취급하는 일본 브랜드의 유사제품은 56.7g 용량에 3.99유로(약 5,434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를 100g 용량으로 환산하면 7.04유로(약 9,588원)입니다. 이와 비교하면 고객사 제품의 가격은 매우 높은 편으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사 제품의 포장은 업계 기준에 잘 부합하여 현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조언하자면, 독일 내 일본 식당은 톳 제품의 주요 B2B 구매자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들 대상으로 특화된 가격과 포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현지 바이어들을 설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독일에서 톳 시장은 아직 틈새시장에 해당하며 수요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 바이어들은 매우 제한적인 물량의 톳 제품을 수입합니다. 일본 식품 전문 바이어들은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어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신규 진입 업체의 공급망 참여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편입니다. 그러나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한다면 충분히 바이어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고객사 제품을 수입할 의향이 있나요?

현재 저희 업체는 고객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당장 새로운 톳 제품을 수입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톳은 여전히 신형 제품으로써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수요 트렌드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파트너사를 확장할 의향이 있습니다.

Q. 독일로 수산가공식품, 김, 톳 등을 수출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독일에서는 톳을 비롯한 해조류 품목에 대해 중요한 수입규정이 있습니다. 라벨링, 원산지 증명, 인증 취득 등 관할 당국의 품목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권한 당국으로 연락을 취하면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참고 자료

1. 외교부, 「국가개황」, 2020
2. KATI 농식품수출정보, 「유럽, 해조류에 눈뜨다.」, 2020.07
3. 유로모니터(Euromonitor), 「Supermarkets in Germany Country Report」, 2022.02
4. 유로모니터(Euromonitor), 「Discounters in Germany Country Report」, 2022.02
5. 유로모니터(Euromonitor), 「Processed meat, seafood and alternatives to meat in Germany Country Report」, 2022.02
6. 유럽수산물시장관측소(EUMOFA), 「Country Report - Germany」, 2022.03
7. 한국수산물경제, 「독일의 김 시장 동향」, 2022.02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독일, 한국 식품 지금이 진출 적기」, 2020.08
9. 식품음료신문, 「유럽 'K-푸드' 건강식으로 급부상, 식재료도 진출 가능성 커져」, 2021.10
10. 미농무성(USDA), 「Fish and Seafood Market Report - Germany」, 2018.04
11. 씨푸드소스(SeafoodSource), 「Lidl Germany obtains GMO-free salmon certification」, 2019.12
12. 수산물수출정보포털(KMD), 「주요국 수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 독일」, 2018.08

■ 참고 사이트

1. 유로모니터(Euromonitor) (www.portal.euromonitor.com)
2.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www.fao.org)
3.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er) (www.trademap.org)
4. 아마존(Amazon) (www.amazon.de)
5. 이베이(ebay) (www.ebay.de)
6. 피쉬마켓함부르크(Fischmarkt Hamburg) (www.hamburg.de/altona/fischmarkt)
7. 함부어거하펜운트로기스틱아게(Hamburger Hafen und Logistik AG) (www.hhla.de)
8. 레베(REWE) (www.rewe.de)
9. 에데카(Edeka) (www.edeka.de)
10. 드림스타임(Dreamstime) (www.dreamstime.com)
11. 옥타라이트(Oktalite) (www.oktalite.com)
12. 리테일디테일이유(RetailDetail EU) (www.retaildetail.eu)
1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www.at.org)
14. 한국수산물경제 (www.fisheco.com/)
15. 고아시아(Go Asia) (www.goasia.net)
16. 와이마트(y-mart) (www.y-mart.de)
17. 미테메어(Mitte Meer) (shop.mitte-meer.de)
18. 도이체제(Deutsche See) (www.deutschesee.de)
1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europa.eu)
20. 독일 관세청 (www.zoll-d.de/)
21. 유럽연합위원회 식품표시정보시스템 (food.ec.europa.eu)
22. 유럽 식품안전신속경보 포털(RASFF Portal) (webgate.ec.europa.eu/rasff-window)
23.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 (www.bfr.bund.de)
24. 독일연방식품원(BZfE) (www.bzfe.de)
25. 유럽연합 개발도상국 수입촉진센터(Centre for the Promotion of Imports from developing countries) (www.cbi.eu)
26. 관세청 (www.customs.go.kr)
27. 통합무역정보서비스 (www.tradenavi.or.kr)

28. 관세법령포털 (unipass.customs.go.kr)
2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www.nfqs.go.kr)
30. 해양수산해외산업포털 (www.kmi.re.kr)
31.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32. 제이에프씨인터내셔널유럽(JFC International Europe) (www.jfc.eu)
33. 제이아이케이게엠베하아시안푸드(JIK GmbH Asian Food) (www.jikgmbh.de)
34. 재팬파인코스트(Japan Feinkost) (japan-feinkost.de)

